

양육
청각장애
길라잡이

양육 청각장애 길라잡이

일러두기

- ★ 장애영유아 양육 가이드북은 모두 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2권은 발달장애, 제 3·4·5권은 시각·청각·지체장애(뇌병변장애), 제 6권은 공통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이 가이드북에서 발달장애는 주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및 발달지체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 ★ 지체장애 편에서는 주로 뇌병변장애 영유아를 다루었습니다.
- ★ 이 가이드북에서 장애영유아(0세부터 만 5세까지)는 장애인 등록을 하였거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그리고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장애위험을 지니고 있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를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만 5세 이상이지만 현재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 ★ 이 가이드북 내용 중에는 학계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현재 계속 연구 중에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 이 가이드북에서 사용된 용어는 각 장애 영역 혹은 집필자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국립특수교육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를 밝히려 합니다.

장애자녀를 양육할 때 가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양육 초기단계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부모의 올바른 양육 정보가 초기 장애를 개선하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애자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양육 초기단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양육’에 초점을 둔 자료는 그동안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의 부모들은 장애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어 혼란을 겪는 시기임에도 이를 지원하는 방안과 자료들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국립특수교육원은 ‘양육’과 ‘부모’, ‘양육 초기단계’에 초점을 두고 본 가이드북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부모님들의 뜨거운 열망이었습니다. 장애자녀 양육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 단계에 집중하여 ‘부모님을 위한’ 자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휴대하기 편한 모양의 가이드북이어야 했습니다.

완성된 가이드북은 총 6권으로, 제1권 발달장애-양육지식·정보, 제2권은 발달장애-양육기술, 제3권 시각장애, 제4권 청각장애, 제5권 지체장애(뇌병변장애), 제6권 공통-가족지원입니다. 각 권은 자녀의 발달단계와 장애영역에 따라 양육정보 및 기술, 교육·심리, 의료·복지서비스, 학부모 네트워크 정보 등의 폭넓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양육 지원 사업은 이제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을 시작으로 향후 발전된 모습의 후속 가이드북이 속속 개발되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 가이드북이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적셔드리는 좋은 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자라는데 유용한 양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앞으로도 특수교육의 사랑을 실천하며, 현장중심에서 부모님과 소통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국립특수교육원장 우 이 구

01

*

청각장애 이해



- 12 1. 청각장애 정의
- 14 2. 청각장애 분류
- 17 3. 소리 청취 과정
- 18 4. 청각장애 진단과 평가
- 26 5. 청각장애 등록
- 28 6. 언어지도 방법
- 31 7. 양육 사례

02

*

청각 보조기기



- 36 1. 보청기
- 44 2. 인공와우
- 50 3. 양육 사례

03

*

청각장애 유아 언어발달



- 54 1. 청각장애 유아와 일반유아의 발달 특성
- 57 2. 청력손실과 언어발달
- 63 3. 언어발달 점검표
- 67 4. 양육 사례

04

*

청각장애 유아 언어지도



- 72 1. 청각장애 유아 배치
- 77 2. 언어발달 지원방법
- 87 3. 양육 사례

05

*

청각장애 유아 수어 지도



- 94 1. 한국수어
- 99 2. 농문화
- 100 3. 이종언어교육
- 103 4. 양육 사례

06

*

청각장애 유아 가족지원



- 110 1. 부모의 역할과 가족의 기능
- 117 2. 행복한 우리가족 만들기
- 122 3. 장애부모 동료상담지원
- 122 4. 가족지원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 125 5. 양육 사례

07

*

청각중복장애



- 128 1. 중복장애의 일반적 특성
- 129 2. 청각중복장애의 특성과 유형
- 130 3. 청각중복장애 교육
- 132 4. 양육 사례

01 청각장애 이해



1. 청각장애 정의

청각장애란 소리를 지각하는 신체부위인 귀의 어느 한 부분에라도 문제가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곤란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청각장애는 의학적인 관점과 교육적인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청각장애는 청력손실의 정도에 따라 정의하며,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청력손실이 언어발달과 교육 성취와 같은 학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정의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청각장애가 교육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청각장애를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의사소통의 기능성 여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❶ 청각장애의 교육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에 의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0조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❷ 청각장애에 대한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조 별표1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데시벨)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데시벨) 이상,
다른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데시벨)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❸ 청각장애에 대한 문화적 관점이란 무엇인가요?

위에서 살펴본 청각장애에 대한 의학적인 관점과 교육적인 관점은 단순히 신체적 문제(장애)만을 기준으로 분류함으로써 농인을 청력이 손실된 장애인이나 교정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이미지로 생각하게 합니다. 두 관점은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서 보청기의 착용 및 조정이나 교육방법 및 언어지도 방법 선택 등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농인을 청인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나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청각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의학적, 교육적 관점 외에 문화적 관점이 있습니다.

문화적 관점에서 농인은 구어와는 다른 언어인 수어를 사용하는 소수 집단을 이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쉬운 예로 영어를 모르는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고 하여 '청각장애가 있다' 라고 말하지 않듯이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이 구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장애인으로 보지 않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교육적 관점에서 농인은 구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에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화적 관점은 농인이 수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에 장애가 있다고 보지 않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농, 난청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세 용어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청각장애는 청력 손실이 적은 것에서부터 심한 정도의 청력 손실을 모두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농과 난청이 모두 여기에 속하고, 농(deaf)은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청각을 통해 언어적 정보를 주고받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난청(hard of hearing)은 대개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의 잔존 청력의 정도가 청각을 통한 정보 교환이 어렵지만 가능한 수준을 말합니다. 따라서 난청보다는 농이 더 심각한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2. 청각장애 분류

청각장애는 청력손실 정도, 청력손실 시기, 청각기관 손상 부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청력손실 정도에 따른 소리 듣기의 영향은 무엇인가요?

청력손실 정도에 따른 분류와 언어·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 청력손실 정도가 언어와 말에 미치는 영향

청력 손실 정도(dB)	분류	언어와 말에 미치는 영향
0-25	정상	의사소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
26-40	경도	조용한 환경이라도 적거나 원거리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는 듣기 어려움
41-55	중등도	일상 대화 말소리는 듣기 어렵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는 들을 수 있음
56-70	중등고도	크고 명백한 말소리도 가끔 듣기 어려우며 집단 상황에서는 어려움
71-90	고도	큰 말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많은 단어가 인지 되지 않음
91 이상	최고도	대화 말소리를 들을 수 없으나 일부 큰 환경음을 들을 수도 있음

② 청력손실 시기에 따른 소리 듣기의 영향은 무엇인가요?

청력손실 시기에 따른 분류는 청력손실이 언제 발생했는지가 기준이 되는 분류 방법으로 언어습득 전 청각장애와 언어 습득 후 청각장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어습득 전 청각장애는 말을 하고 언어를 이해하는 학습을 하기 전에 청각장애가 된 사람을 말하고, 언어습득 후 청각장애는 말을 하고 언어를 이해하는 학습을 한 후에 청각장애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청력손실 시기에 따라 아동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언어능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을 교육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분류입니다.

③ 청력손실 부위에 따른 소리 듣기의 영향은 무엇인가요?

청각기관 손상 부위에 따른 분류는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서 청각기관의 손상 부위에 따라 전음성, 감음신경성, 혼합성, 중추 청각처리장애로 분류합니다. 전음성 청각장애는 외이나 중이에 장애가 있어서 소리의 전달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청력손실도가 낮아 정도 또는 중등도 청력손실을 보이며 보청기를 착용하면 일반적인 대화할 수 있으며 수술, 기타 의학적 기법으로 교

정기 기능합니다.

감음신경성 청각장애는 외이, 중이는 정상이지만 내이 나 청신경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청력손실 정도가 심하고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치료로도 회복이 어렵지만 청신경이 기능을 하는 경우 인공와우 이식수술과 수술 후 언어치료 및 청능훈련을 통해 언어습득 및 구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합성 청각장애는 전음성 청각장애와 감음신경성 청각장애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고, 중추청각처리장애는 말초청각에는 문제가 없지만 청신경-뇌간-대뇌피질의 전달경로에 문제가 있어 말소리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장애등급을 받을 때 청각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등급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장애등록 시 장애 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분류가 되며 청각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등급은 청각장애인을 '청력이 손실된 사람' 2급~6급,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급~5급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장애등급	분류 기준
청력을 잃은 사람	2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dB(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dB(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4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70dB(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dB(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을 80dB(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dB(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급	양측 평형 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m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4급	양측 평형 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m 이상을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기 위하여 멈춰야 하는 사람
	5급	양측 평형 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3. 소리 청취 과정

귀는 복잡하고 정밀한 신체기관으로 외이, 중이, 내이로 나뉩니다(<그림 1> 참조). 외이는 이개와 외이도로 구성됩니다. 이개는 외부에 돌출된 귓바퀴를 말하며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외이도는 이개에서 고막에 이르는 통로를 말합니다.

중이는 고막, 고실, 이관, 이소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막은 소리가 닿으면 진동하는 얇은 막으로 소리의 진동을 중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실은 고막 안쪽의 공간을 말하고 고막의 진동은 고막과 연결된 3개의 이소골(추골, 침골, 등골)을 순서대로 진동시킵니다. 등골의 진동은 중이와 내이 사이의 막인 난원창을 진동시켜 음이 내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이에 있는 3개의 이소골은 음파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내이는 전정기관과 와우(달팽이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우는 소리를 받아 들이는 기관이며 전정기관은 균형감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 경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공기를 통해 귓바퀴에서 외이, 중이, 내이로 전달되는 과정의 기도전달경로와 유양돌기나 머리뼈와 같은 골도를 통해 내이로 바로 전달하게 되는 과정의 골도전달경로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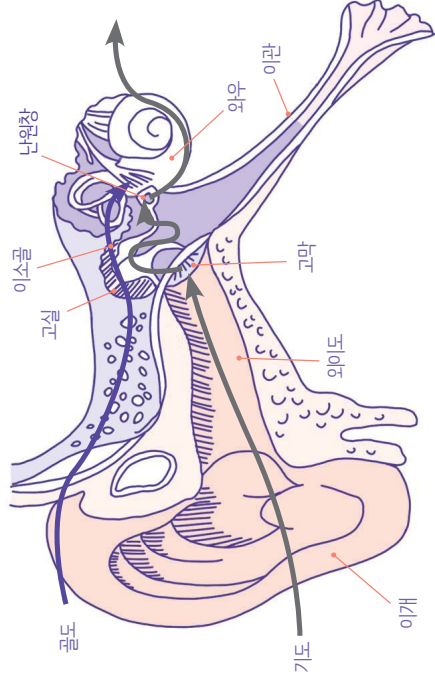


그림 1 | 귀의 구조 및 소리 청취 경로



질문있어요

청각장애아의 청력손실 정도에 따라서 말소리를 어느 정도 인지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청각장애 아동의 청력손실 정도에 따른 말소리 인지 정도를 이해하는 것은 아동의 교육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 1>의 청력손실정도에 따라 말소리지각 능력과 표현 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청력(0~25dB)은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작은 목소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일상적인 대화에서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경도 청력손실(26~40dB)은 소음이 있을 때 일부 음소를 듣지 못하며 멀리서 나는 소리나 작은 말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말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경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등도 청력손실(41~55dB)은 말소리를 크게 해 주면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소음이 많으면 말소리만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등고도 청력손실(56~70dB)은 청각적 단서로 모든 말소리를 인지하기는 어려우므로 시각적 단서를 함께 활용하여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장구를 착용할 경우 말소리 이해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발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도 청력손실(71~90dB)은 청각적 단서만으로는 대화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보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착용하더라도 정확하게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청각장애 진단과 평가

① 청력검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평가에는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주관적 평가는 청각장애 아동이 여러 자극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진단하는 방법이고 객관적인 평가는 여러 전기적 신호 자극에 반응이 나타난 결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청각장애 아동 중에는 청각장애헌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학교에 입학한 후에 장애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이 청각의 이상을 나타내는 행동을 보

이는지 잘 관찰하여 빠른 시기에 청력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한쪽 귀를 돌리거나 언어의 발달이 지체가 되고 제한된 어휘의 사용을 보이며 주의집중력 부족, 큰 소리로 말하기, 지시나 질문을 되물거나 감기, 중이염 등과 같은 귀 질환에 자주 걸리면 청력검사를 하는 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진단평가에 주로 사용하는 객관적인 청력 검사에는 이음향방사검사, 이미티스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을 사용하며 주관적인 검사로는 기본적으로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력검사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음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는 ‘삐~’와 같은 신호음인 순음을 들려주고 각 주파수마다 음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를 받는 사람은 귀에 헤드폰이나 삼입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데 소리가 들리면 손을 들거나 버튼을 눌러 표시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소리청취경로에 기도청취와 골도청취경로가 있으므로 순음청력검사에는 기도청력검사와 골도청력검사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청력검사는 이어폰을 끼고 외이와 중이를 통해 전달되는 순음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고, 골도청력검사는 골도 이어폰을 사용하여 진동이 직접 두개골을 통해 내이에 전해지게 하여 청력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이와 중이에 손상이 있으면 기도청력이 낮게 나오고 내이에 손상이 있으면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이 모두 낮게 나오게 됩니다.



그림 2 | 청력검시기, 헤드셋, 진동자

어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단어 중 모든 단어의 강도가 동일하게 발생하는 동일음압단어(예: 편지, 달걀, 시간, 육군, 신발, 평공 등)를 들려주는 방법으로 검사를 합니다. 검사음을 듣고 50% 이상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강도를 측정하거나 검사음을 듣고 50% 이상 따라하거나 받아쓰는 가장 낮은 강도를 측정합니다. 또한 대화하기 편한 강도에서 소, 창, 키, 말, 차 등과 같은 의미가 없는 1음절 단어를 들려주고 얼마나 정확하게 따라 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서 보청기의 적응 및 이득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음향방사검사

이음향방사검사는 귀에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내이에 있는 와우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보는 검사입니다. 이음향방사란 와우에 있는 외유모세포의 수축과 진동 운동 발생을 말하는데 이 이음향방사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25~35dB HL 이상의 청력값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티스검사

앞에서 말했듯이 중이는 고막, 이소골, 이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티스검사는 이런 중이의 상태나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고막의 상태 이소골의 기능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음이 고막을 통해 전달되는 등골근의 움직임으로 내이나 청신경의 상태도 파악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청신경과 뇌간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머리의 여러 곳에 센서를 붙이고 헤드폰을 통해서 청각신호를 전달하여 청각신경이 인지하게 되면 뇌파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컴퓨터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2) 신생아를 위한 청력검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청각장애의 조기발견과 중재가 아동의 언어와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생아기부터 청각선별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청력 선별검사는 의무가 아니며 실시하는 병원도 적어 부모가 특별히 원하는 경우만 검사를 받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청각장애가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신생아청력선별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표 2 | 신생아청력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가족 중 유전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
- 임신 중 풍진, 매독 및 헤르페스, 거대세포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경험에 있는 경우
- 안면, 귀의 기형이 있는 경우
- 출생 시 체중이 1,500g 이하의 저체중인 경우
- 아기가 심한 신생아 황달이 있는 경우
- 아기가 이독성을 지닌 약제를 투여 받은 경우
- 세균성 뇌막염을 앓은 경우
- 출생 시 심한 호흡장애나 5일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
- 감각성 난청 또는 전음성 난청과 관련된 증후군을 보이는 경우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청력검사는 주로 객관적인 검사로 이루어지며 객관적인 검사에는 이음향방사검사, 이미티스검사,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 등이 있고 주관적인 검사에는 행동관찰 검사법, 시각반응을 이용한 검사법, 놀이를 이용한 검사법 등이 있습니다. 신생아를 위한 주관적인 청력검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동관찰검사

생후 6개월에서 2세까지 실시할 수 있는 검사로 친숙한 엄마의 목소리나 장난감 소리를 들려주고 아동이 머리를 돌려서 소리를 찾는 행동을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시각강화청력검사

시각강화청력검사는 청각 자극에 대한 반응을 유발하게하기 위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나 시선을 돌릴 때 빛을 깜박이거나 재미있는 그림 화면, 장난감 등을 이용하여 반응을 유도하고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유회청력검사

2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어폰을 통해 자극음이 들려올 때마다 놀이를 하도록 하는 검사입니다. 아동이 소리를 알아채고 소리가 들릴 때만 블록을 쌓도록 하거나 막대에 고리를 끼우도록 하는 방법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빠른 시기에 청력검사를 하면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적절한 청각자극은 언어발달 및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언어발달시기에 적절한 자극을 받지 못하면 보통의 아동보다 언어발달에 지연이 생기고 학습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기에 검사하여 빠른 시기에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중재의 장점은 적절한 시기에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를 착용함으로써 아동의 언어 발달을 지원하고 언어자극을 통해 아동의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③ 청력검사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청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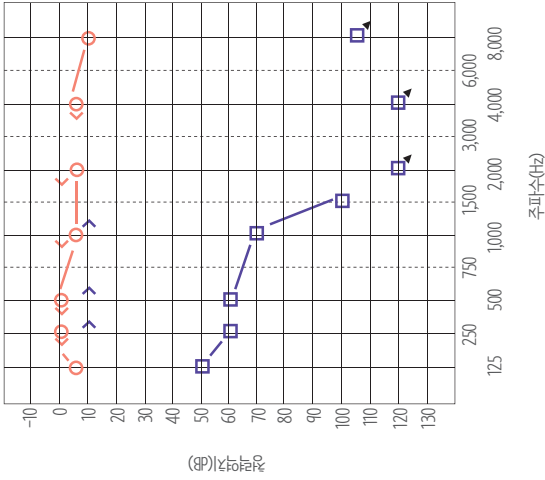


그림 3 | 청력도 해석

청력도는 각 주파수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강도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청력도의 가로축은 주파수(Hz)를 표시하고, 세로축은 청력수준(dB)을 나타냅니다.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Hz)로 숫자가 작으면 낮은 소리, 크면 높은 소리를 나타냅니다. 즉, 청력도의 가로축 왼쪽으로 갈수록 저음,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리를 나타냅니다. 청력수준을 나타내는 단위는 데시벨(dB)로 데시벨의 숫자가 클수록 소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청력수준이 80dB이라고 나왔다면 80dB보다 큰 강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이하의 소리는 듣기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청력검사를 표시하는 기호를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습니다.

표 3 | 청력도 표시 기호

구분	오른쪽	왼쪽
세	빨간색	파란색
기도검사	○	×
골도검사	<	>
차폐한 기도검사	△	□
차폐한 골도검사		]
무반응	/	↘

청력도 해석 방법

청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력손실 정도, 청각장애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 청력손실 정도

청력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들을 수 있는 소리 중 가장 작은 크기인 최소가청역치를 근거로 평균청력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청력역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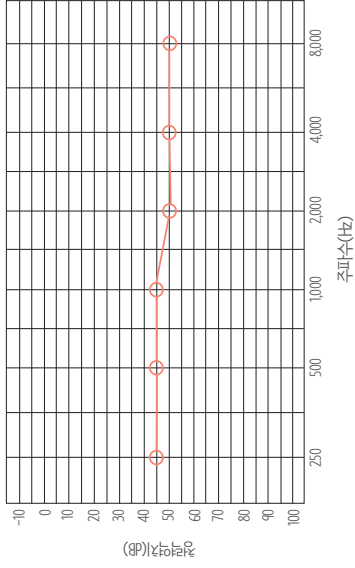


그림 4 | 청력도

예를 들어 <그림 4>의 청력도는 오른쪽 귀를 검사한 것으로 이 청력도의 평균청력은 4분법으로 할 경우 $45\text{dB}+(45\text{dB})\times 2+50\text{dB}/4$ 로 하면 46.25로 약 46dB이고 중등도 청력손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청각장애 유형

청력도에서 나타난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의 차이를 통해 청각장애의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청각장애의 유형별 청력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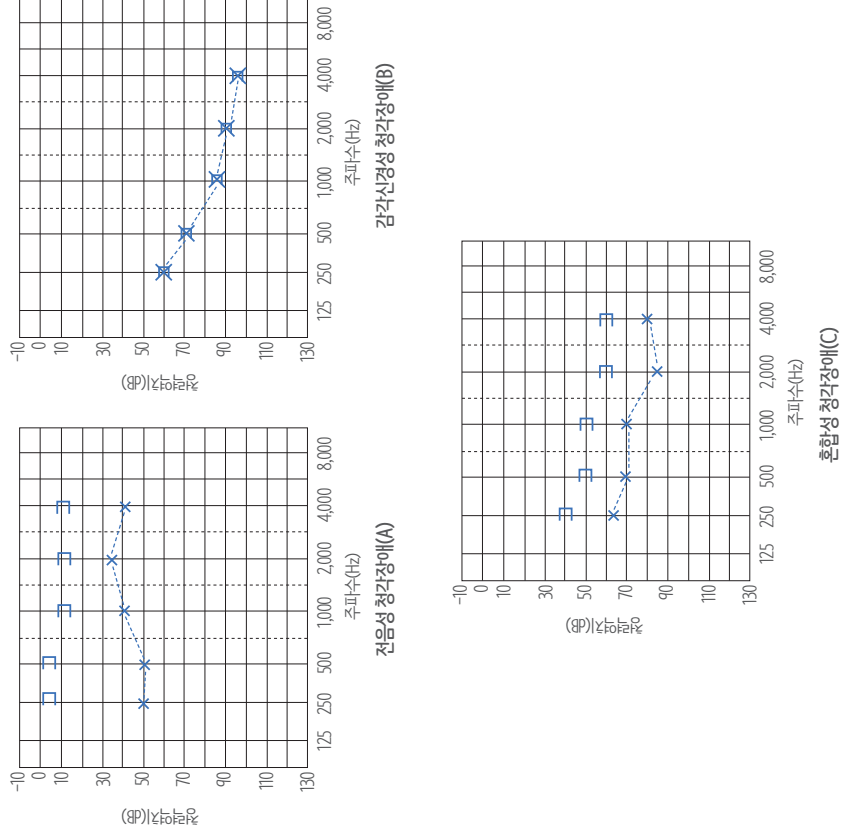


그림 5 | 청각장애 유형별 청력도

전음성 청각장애는 외이나 중이에 병변이 있지만 내이에는 병변이 없기 때문에 <그림 5>의 A처럼 기도청력에서는 청력손실이 있지만 골도청력은 정상상을 보입니다. 각각신경성 청각장애는 내이의 병변으로 인해 기도와 골도청력에서 비슷한 손실을 보입니다 <그림 5>의 B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도와 골도 청력이 근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합성 청각장애는 외이, 중이, 내이에 병변이 있는 경우로 기도 및 골도 청력에 모두 손실이 나타난 <그림 5>의 C처럼 기도와 골도 청력역치 간의 차이는 감각신경성 청각장애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청력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면 청력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력도를 통해 청력손실 정도, 청력손실 유형(전음성, 감각신경성, 혼합성), 청력형(수형평, 저음장애형, 고음장애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말소리를 어느 정도 듣고 이해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력도를 해석하는 것은 청각장애 자녀 교육에 매우 중요하며, 청력도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청각사나 교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청각장애 등록

① 청각장애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 장비 지원 및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하면 등급에 따라 지원 및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청각장애는 2급부터 6급 사이의 등급을 받게 되고 다른 장애가 중복으로 있으면 한 단계 위의 등급을 받고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 1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18세 미만의 아동,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신청자에게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장애인단 및 검사를 받은 후, 장애인단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제출된 장애인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인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검토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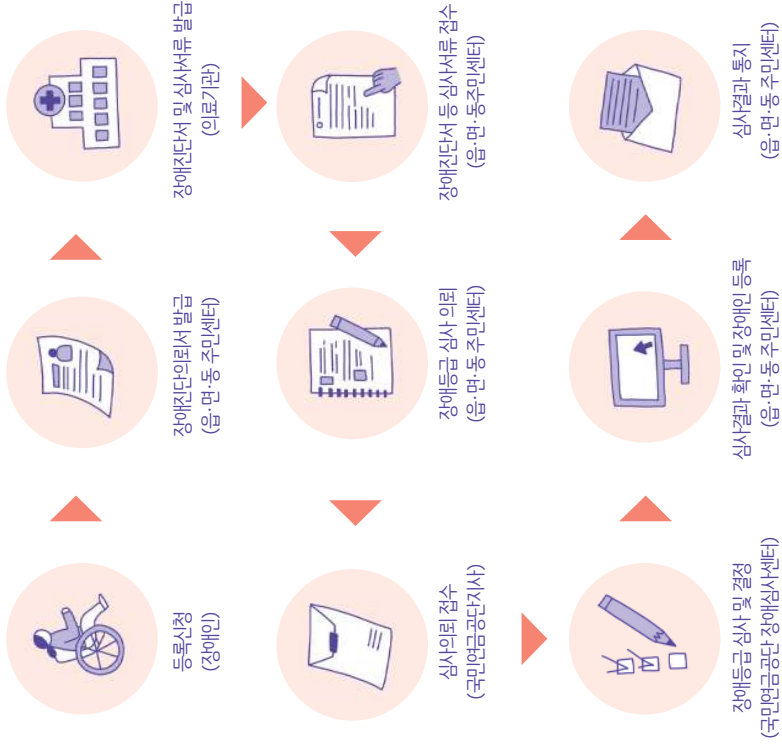


그림 6 | 장애인 등록 절차

② 장애인 등락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장애인 등락을 하면 생활, 건강, 고용, 교육 분야의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분야별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4 | 장애인 등록혜택

분야	내용
생활	장애수당,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장애인연금, 지방세감면(지방세, 주민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 사랑의 그린PC보급, 에너지 바우처,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이동발달 지원계좌지원, 사회취약계층 실내 환경 진단개선 사업, 학교우유급식, 장애아동수당, 장애아기축 양육지원, 서민총가스시설개선, 장애인보조기구교부, 정보통신 보조기기보급,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소외계층 매체 지원, 무료우편서비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등
건강	의료급여,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의료비지원, 여성장애인출산 비용지원,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지원, 치료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구교부,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정신보건센터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충급여 등
고용	취업성공수당·창업수당·생계지원수당 지원, 일반형 일자리 지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장애인 창업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보조공학기기지원, 훈련수당 지원 등
교육	방과후보육료지원, 장애아보육료지원, 언어발달지원사업, 교육비 지원, 장애인 정보화 교육 등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6. 언어지도 방법

① 청각장애인단을 받은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청각장애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에게 남아있는 청력을 활용하여 아동이 조금이라도 더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청각

장애 아동의 언어발달 및 의사소통은 또래의 진척이동보다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형성 및 상호작용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언어치료실, 청각장애 특수학교 영·유아부에서 언어재활 및 교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어치료실은 병원, 복지관, 대학의 센터, 사설기관 등 많은 곳이 있고 비용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적절한 상담 및 지인들의 추천을 통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학교의 영·유아부 과정은 장애인 등록 후 입학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한 특수교육적 지원으로는 보청기, 인공와우, 청능훈련, 발성·발어훈련, 독화, 수화, 종합적 의사소통법, 이중언어·이중문화 접근법, 보완 대체의사소통법, 보조공학 등이 아동의 교육환경 및 일상생활에서 고려되고 지원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아동의 청력상태 및 언어발달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아동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② 조기 언어지도가 필요한가요?

아동에게 들리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 일상생활의 다양한 소리 등과 같은 주변의 환경음은 아동의 청각을 자극하는 언어발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커가면서 이런 소리를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의사소통을 시도하게 되면서 언어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 청력손실로 인해 우연히 학습할 수 있는 청각적인 자극이 제한되어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휘 및 언어발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언어발달 시기를 놓치게 되면 또래에 비해 언어발달이 지연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남아있는 청력을 파악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구어, 수어, 어떠한 몸짓이나 신호 아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양식을 통해 상호작용의 기회를 주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3 언어지도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지도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구어/청각적 접근, 종합적 의사소통(total communication), 이중언어/이중문화접근(2Bi)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음성언어와 청각을 이용하는 구어/청각적 접근은 남아있는 청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기 위한 청능훈련과 말하기 기술 활용을 강조합니다. 종합적 의사소통법은 청각장애 아동이 활용 가능한 모든 의사소통 양식 즉, 구어, 수어, 독화, 필담 등 모든 양식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중언어·이중문화접근은 모국어로 수어를 습득하고 구어 기술과 읽기와 쓰기 기술은 외국어로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으로 청각장애인의 언어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수어는 손의 움직임과 얼굴표정, 몸짓과 같은 비수지 신호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시각언어입니다.



효과적인 언어지도 방법은 무엇인가요?

언어지도 방법에 대한 논의가 수년간 계속되었고 가장 효과적인 언어지도 방법은 이렇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부모의 상의를 통해 청각장애 아동의 청력수준 및 언어발달 수준에 맞는 언어지도 방법을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적합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언어지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 사례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나의 보물

김영순(가명)

저에게는 결혼 전부터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꼭 닮은 아이를 낳아 함께 여행 다니며 사진도 찍고, 추억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꿈. 그런데 남들에게는 평범하고 당연한 일들이 저에게는 아이를 가질 때부터 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임신이 힘든 저희 부부에게는 시험관이라는 방법만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유산방지 주사를 맞으며 2번의 시험관 시술 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철수가 저희에게 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태어난 지 3일째에 청력검사를 하였습니다. 청력검사는 30분이면 끝나다던데 우리 아기는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를 기다리며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올라온 후 의사선생님께서 큰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진이라고 병원의 기계 고장이라고 생각하며 갇난아이를 안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미친 듯이 다녔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두려움은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기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에 아기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고 저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정말 더 화가 나는 것은 사랑하는 나의 아기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엄마라는 사람인 저는 모든 세상소리를 들으며 울고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 자신이 가장 미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사랑 해주고 웃어주어야 할 그 때에 웃음보다는 눈물을 더 많이 보여준 것 같아 미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밝고 긍정적으로 자라준 철수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철수는 달팽이관도 기형이지만 청신경에 신경도 희미합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은 인공외우 수술을 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 닥친 큰 위험만이라도 감지 할 수 있도록 수술을 권했습니다. 수술하는 날까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라는 생각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조금이라도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인공와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철수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에 반응을 하고 “철수야” 하고 부르면 쳐다보기도 하고 “엄마, 아빠” 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청각장애 학교를 알게 되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나도 밝은 목소리로 친절히 설명해주는 선생님께서 매료되어 학교를 찾아가게 되었고 너무나도 밝은 아이들과 친절하신 선생님들, 그리고 가족적인 분위기에 폭 빠져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철수가 처음으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정확하게 않은 발음으로 “주세요.” 라고 말을 하던 날입니다. 선생님과 박수치며 기뻐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가족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발음은 부정확해도 자기표현을 하며 아는 단어도 많아지고 지금은 두 단어, 가끔은 세 단어의 문장까지도 말하는 철수를 보며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철수의 엄마가 되기 전에는 장애인을 보면 그저 ‘불쌍하다, 안쓰럽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철수의 엄마가 된 후 장애는 절대로 불쌍하고 안쓰러운 것이 아니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더딜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일반 아이들보다 더 맑고 순수한 우리 아이를 보며 정말 하늘에서 보내주신 천사임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각장애 학교 선생님들, 우리 반 부모님을 비롯하여 학교를 다니는 모든 친구들 고맙고 사랑합니다.^^

02

Part

청각 보조기기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들을 때 사용하는 기기가 청각 보조기기입니다. 청각 보조
기기는 귀에 착용해서 사용하는 보청기와 수술을 통해 이식해서 사용하는 인공와우
(인공달팽이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청각 보조기기의 종류와 사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36p

인공와우



44p

양육 사례



50p

02 청각 보조기기



1. 보청기

보청기는 귀에 착용하는 음향기기입니다. 보청기를 통해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눈이 나빠져서 멀리 있는 글자가 보이지 않으면 안경을 끼듯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 보청기를 사용합니다.

❶ 보청기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보청기에는 작은 마이크와 스피커가 함께 있습니다. 소리를 받아들이는 마이크와 소리의 크기를 키우는 증폭기, 증폭된 소리를 내보내는 리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음향기기와 비슷합니다. 귀에 착용하기 위해 소형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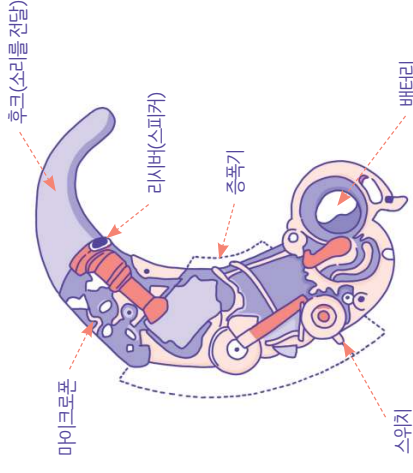


그림 7 | 보청기 구성

❷ 보청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보청기는 모양과 크기에 따라 고막형, 귓속형, 귀걸이형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또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 아날로그 보청기와 디지털 보청기가 있으나 지금은 대부분 디지털 보청기를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뼈의 울림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골도 보청기도 사용됩니다.

귀걸이형 보청기

- 보청기를 귓바퀴에 걸어서 착용하며 귓본(이어몰드)을 아이 귀에 맞춰서 사용
- 증폭의 범위가 크고 조절이 쉬워서 아동에게 적합

고막형, 귓속형, 외이도형 보청기

- 보청기가 귓본 형태로 되어 있어 귀 안에 넣어서 착용 함
- 성장에 따라 귀의 크기가 달라지는 아이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음



그림 8 | 귀걸이형 보청기
출처: 굿모닝 보청기

외이도형



귓속형



고막형



그림 9 | 고막형, 귓속형, 외이도형 보청기
출처: 코모닝 보청기

골전도 보청기(골전도 임플란트)

- 귀 뒤쪽 뼈의 울림을 통해 소리를 전달하는 보청기
- 수술로 귀 뒤쪽 뼈에 임플란트를 고정시켜 착용함



그림 10 | 골전도 보청기
출처: 코클리어코리아

FM 보청기

- FM송신기와 수신기를 이용하여 소리를 직접 전달함
- 보청기나 인공와우에 수신기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보청기 없이 수신기에 헤드폰이 연결되는 형태도 있음



그림 11 | FM송신기, FM수신기(목걸이형)
출처: 오티콘코리아

③ 보청기를 선택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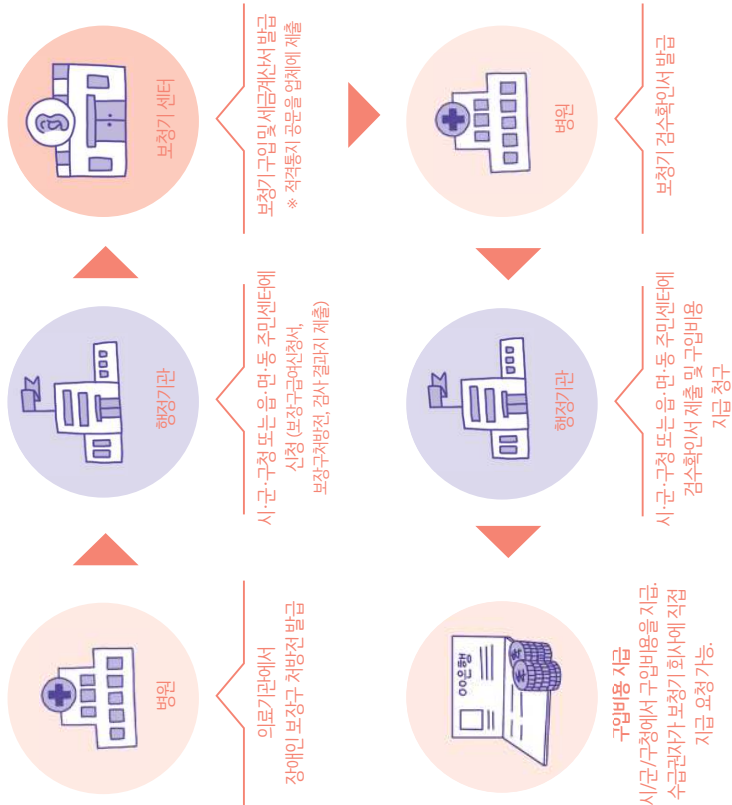
청력 손실의 정도에 맞는 보청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청력 손실이 큰 경우 증폭이 많이 되는 보청기를 선택해야 하며, 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채널을 사용할 수 있는 보청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유아의 경우 정확한 청력검사가 어려워 아이에게 맞게 보청기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으며, 보청기가 불편하여 자주 뺄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관심을 가지고 보청기를 착용시키고 소리에 대한 아이의 반응을 살펴서 청각사에게 알려주고 보청기조절(피팅)을 요청해야 합니다.

④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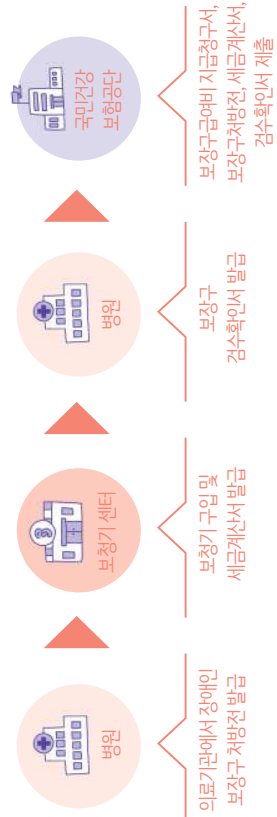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아 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는지 확인한 후에 청력 상태에 따라 보청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보청기 회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입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행정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입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신청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



※ 문의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http://www.nhis.or.kr>)

보청기 보험급여액

표 5 | 보청기 보험급여액(1대 기준)

구분	급여	본인부담	지원 금액	문의처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90%	10%	1,179,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100%	0%	1,310,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100%	0%	1,310,000원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15세 미만 청각장애인이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할 경우 2대 모두 보험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5 보청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보청기 청소

보청기의 앞부분(리시버) 또는 컷본(이어폴드) 앞부분이 귀지 때문에 막힐 수 있으니 전용 도구를 사용해 자주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그림 12 | 보청기 청소

보청기 보관

습기는 보청기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아이가 잠자기 전에 보청기를 빼면 건조지를 분리하고 습기 제거제 통에 넣어서 보관하십시오.



그림 13 | 보청기 보관

보청기 습기 제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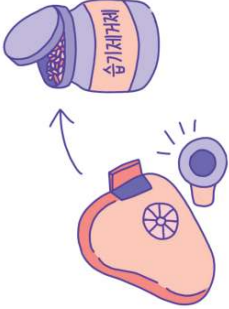
습기 제거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색이 변합니다. 습기 제거제를 처음 샀을 때의 색을 확인해 두십시오. 다른 색이 보이면 습기제거 기능이 점차 떨어지는 것입니다. 보청기의 습기가 잘 제거되지 않으면 습기 제거제를 교체하십시오. 제품에 따라 습기 제거제 알갱이를 전자레인지로 건조시켜 사용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림 14 | 보청기 습기 제거제

※ 주의: 보청기는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6 보청기 사용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①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건전지를 빼고 습기 제거제 통 안에 보관합니다.
- ② 

사워 수영 등을 할 때는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 ③ 

헤어스프레이, 화장품 등이 보청기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합니다.
- ④ 

습기와 열은 보청기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차 안이나 물기가 많은 곳에 두지 마십시오.
- ⑤ 

보청기는 가능한 자주 청소해 주십시오.
- ⑥ 

보청기 착용 후 귀가 아프거나 염증이 생기면 이비인후과 상담을 받습니다.

질문있어요

보청기를 썼는데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리는 건 왜 그런가요?

보청기를 썼는데 소리가 안 들리면 건전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새 건전지로 교체했는데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보청기 구입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보청기 건전지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보청기용 건전지는 크기가 작아 아이가 삼킬 수 있습니다.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건전지는 건조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면 예진과 같이 들을 수 있나요?

청력손실의 정도, 난청이 발생한 시기에 따라 소리를 듣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청능훈련 등 보청기 적응을 위해 노력한 시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시간을 가지고 적응훈련을 해야 합니다.

보청기는 양쪽 모두 착용해야 되나요?

양쪽 귀로 듣는 것과 한쪽 귀로 듣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과 거리에 대한 느낌이 양쪽 귀로 들을 때 보다 분명해지고 소리에 대한 변별력도 높아집니다. 양쪽 귀에 모두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청기 가격은 얼마 정도 인가요?

보청기 가격은 수십만 원에서부터 수백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종류와 기능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크기가 작고 기능이 다양할수록 가격대는 높아집니다.

보청기는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보통 보청기의 사용연한은 5년 정도입니다. 그러나 보청기에 많이 들어가고 보청기를 매일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사용 연한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2. 인공와우

와우는 우리의 귀에 있는 달팽이관입니다. 소리가 달팽이관으로 들어오면 소리 에너지가 전기신호로 바뀌어 청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달팽이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인공와우는 와우(달팽이관)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기기입니다.



그림 15 | 인공와우기

출처: 메델코리아(<http://www.medel.com>)

1 인공와우의 구조와 소리전달 과정이 궁금해요

인공와우는 크게 외부장치와 내부장치로 구성됩니다. 외부장치는 마이크로폰, 어음처리기, 송신기 및 안테나(헤드셋)로 이루어지며, 내부장치는 수신기와 전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장치는 수술을 통해 귀 뒤쪽 뼈에 이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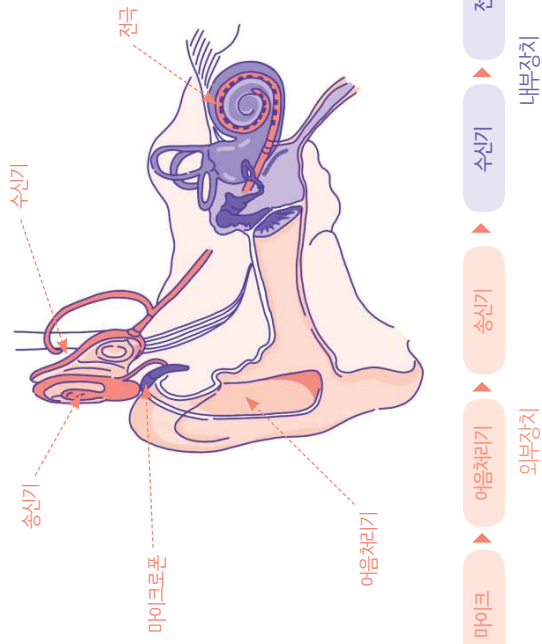


그림 16 | 인공와우의 구조와 소리 전달 과정

2 인공와우 이식 수술은 건강보험이 되나요?

인공와우기 이식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회사별 자격차이가 크지 않고 일반 가전제품처럼 개인이 성능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여러 '인공와우 사용자 모임'이 있어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기기이기 때문에 주로 의사나 청각사의 견해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인공와우이식기는 모두 외국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2016년에 수입회사 한 곳이 추가되어 회사 네 곳에서 인공와우이식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공와우 사용자 모임이 있나요?

다양한 인공와우 사용자 모임이 있습니다.
인공와우와 함께 하는 이야기 (다음카페, <http://cafe.daum.net/icpeople>)
한국 인공와우 사용자모임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iuc.kr>)
인공와우 MED-EL 사용자모임 (다음카페, <http://cafe.daum.net/med-el>)
클라리온 가족모임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iloves>)
캔코리아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canorea>)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있나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내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정해집니다.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7호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15세 미만은 양측 인공와우 수술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15세 이상은 경우에 따라 양측 수술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연령	기준
2세 미만	양측 심도(9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뇌마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2세 이상~ 15세 미만	양측 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 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15세 이상	양측 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 언어 평가가 50% 이하의 경우 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15세 미만 또는 요양급여적용일 이전 인공와우 이식을 받은 자중 양측 이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3가지 해당 연령별 조건에 만족시 반대 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이 때 순음청력검사 및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가 아닌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http://www.nhis.or.kr>)

3 매핑이 무엇인가요?

인공와우를 이식하고 몇 주정도 후에 외부장치를 사용하면 처음으로 인공와우를 통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외부장치의 어음처리기는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내부기기로 전달합니다. 변환된 전기적 신호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개인에 따라 달라서 어음처리기를 각 개인의 청각 능력에 맞게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절 과정이 매핑(mapping)입니다.

매핑 주기

- 첫 매핑 후 한 달간은 매주 매핑을 시행합니다.
- 이후에는 소리에 대한 반응 정도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매핑 주기를 조절합니다.

영유아의 경우 부모가 아이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소리 반응을 관찰하여 매핑이 필요하지 판단하여 일반적인 매핑 주기보다 더 자주 매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인공와우 보관과 관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인공와우기(외부장치)의 보관

인공와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습기 제거제가 들어있는 보관함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장시간 보관 시 인공와우기에서 건전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인공와우기(외부장치)의 청소

먼지나 모래가 인공와우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와우기의 외부를 깨끗한 천으로 닦고 필요한 경우 약한 세제를 조금 문힌 천으로 가볍게 닦아내고 완전히 마른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습기가 많은 천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습기 제거

습기가 많으면 인공와우기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판이 많이 나면 손수건을 사용하여 닦고, 필요한 경우 인공와우기(외부장치)를 빼서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받으면 소리를 잘 듣게 되나요?

인공와우기를 통해 듣는 소리는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세로게 들리는 소리에 대해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의 경우 수술 후 듣기 연습과 함께 언어치로도 필요합니다. 언어치료실이나 청각장애 특수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인공와우 이식을 받은 유아가 구어를 성공적으로 배우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식 연령, 이식 전 구어 활용 능력, 구어를 활용하는 언어 환경, 이식 전 청력, 유아의 인지 능력 등이 이러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인공와우 이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유아가 기적적으로 소리를 잘 듣고 말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공와우 수술을 하기 전에는 이비인후과 의사, 특수교사, 청각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와우는 보청기보다는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공와우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가지는 것은 금물이며, 인공와우 수술 이후에는 충분한 구어와 수어교육이 필요합니다.

인공와우기를 착용하고 운동을 할 수 있나요?

성장기 아이들에게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운동에 문제가 없으나 격렬한 운동은 외부장치가 떨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외부장치를 떼고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운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꼭 착용하고 머리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식된 인공와우 내부장치는 단단한 재질의 케이스로 보호되지만 직접적인 충격은 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공와우기가 물에 빠졌어요.

방수기능이 없는 어음처리기가 물에 빠졌을 경우 최대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건전지를 제거하고 물기를 빼내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회사에 문의하여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점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나 방수기능이 있는 어음처리기의 경우에는 수영 중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와우기는 자기공명영상(MRI)과 같은 의료 장비의 영향을 받나요?

인공와우기는 금속성 물질과 자석이 사용됩니다. MRI는 인공와우기 내부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공와우기를 착용 후 MRI를 사용하면 MRI 영상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MRI와 같은 의료장비 사용이 꼭 필요한 경우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고 인공와우기 제작회사에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공와우기가 정전기 때문에 고장날 수도 있나요?

인공와우기는 정전기에 의한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가벼운 정전기는 인공와우기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강한 정전기가 자주 생기는 환경은 인공와우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미끄럼틀을 타는 등 지나친 정전기를 발생시키는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공와우에 사용되는 물질은 금속탐지기에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공항 검색대에서 인공와우기 사용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평상시와 같이 인공와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건전지를 가지고 놀아요.

건전지를 입에 넣거나 삼키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건전지를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먹었을 경우 즉시 가까운 응급실을 찾아가야 합니다.

인공와우 수술, 시기가 중요합니다

강한미(가명)

안녕하세요?

다래, 다준 엄마입니다. 아이의 난청 사실에 놀라고 또 정보를 찾고 있는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아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양이 인공와우 수술을 하였습니다.

다래의 첫 난청 사실을 알게 된 건 23개월 무렵입니다. 그 당시 다래를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난청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친척 중 누구도 난청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웅얼이도 제법 했고, 생후 8.9개월 무렵엔 엄마, 아빠 소리로 했습니다. 다래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동했고, 정상 아이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돌(24개월)이 다 되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놀기를 잘 하고, 엄마의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점이 조금 걱정 되어 혹시 자폐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처음 동아대학교병원에 검사 의뢰를 했을 때, 일단 청력 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하는 ABR 검사인거지요. 너무 어린 아이에게 약까지 먹여가면서 괜한 검사를 하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검사 결과는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 들어보지도 못한 진단명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들을 수 없단니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하늘도 원망하고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어 서울에 있는 병원의 유명하다는 교수님 앞으로 진로 예약을 했습니다. 병원에 청력 검사를 하러 갔을 때 청력 검사실의 선생님께서 “인공와우이식은 나중에 매핑도 같이 해야 되는 긴 재활이 필요하니 가까운 데서 수술하는 게 나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남은 검사들을 취소하고 부산에 있는 병원의 난청클리닉 진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래의 청력은 왼쪽 90dB, 오른쪽 100dB 정도로 일단 보청기 재활을 시작했는데, 아이는 보청기 재활에도 많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인공와우에 대한 정보를 주로 인터넷 카페에서 얻었는데, 대부분 인공와우의 부정적인 정보가 많아서 보청기 착용만으로 달라진 다래를 보고 참으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꼭 해야 하나..보청기 재활을 하면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다래의 난청 사실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마 인공와우 수술을 조금 더 미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래는 빨리 말을 배워야 될 시기였고,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수술을 미루기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은 고민이었지요. 결국 2007년 6월, 생후 28개월 때 오른쪽 인공와우 수술을 했습니다. 보청기로도 조금 소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인공와우 수술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리 인지가 가능해지면서 말을 습득하고 산출하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조금 더 빨리 수술을 할 걸..”하는 게 이후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었습니다.

동생 다준이는 산부인과에서 난청 판정을 받고 역시 동아대에서 ABR을 했습니다. 다래보다 조금 더 안좋은 청력, 양측 모두 100dB 이었습니다. 누나 다래가 난청이고 인공와우 수술의 큰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다준이는 최대한 빨리 수술하고 재활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준이는 생후 10개월 되던 때에 오른쪽에 인공와우 수술을 했습니다.

다래는 생후 28개월에, 다준이는 생후 10개월에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는데요, 다래가 수술 후 더 오랜기간 동안 재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준이가 훨씬 말 이해나 산출 능력이 좋다고 느낍니다. 다준이는 정상 아이들이 듣고 말할 시기에 조기 인공와우 수술로 인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준이는 정상 또래 아이와 별 다른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의사소통을 잘 합니다.

처음 난청 사실을 알고 와우에 대한 지식이 없어 수술을 꺼리시는 분들..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조금만 서두르십시오. 슬퍼하고 원망하는 것을 빨리 끝내고 수술 후 재활에 힘쓰십시오. 수술이 빠르면 빠른수록 일반 아이와 같은 시기에 듣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0년 9월, 12월에 다래, 다준이는 왼쪽에도 두 번째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쪽 귀로도 들을 수 있지만 조물주가 왜 우리에게 두 귀를 주었을까요? 조물주가 우리에게 주지 못한 청력을 우리는 양측 인공와우 수술로 얻을 수 있습니다. 양측 수술 한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확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은 느낄 수 없지만 확신합니다. 변화가 더디더라도 언젠가는 훨씬 나아진 아이들의 생활을. 앞으로 재활의 길이 멀고도 험합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조금만 더 서두르십시오. 아이의 미래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만이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할 사람들이기에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긴 글을 마칩니다.

03

Part

청각장애 유아 언어발달



청각장애 유아 언어지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유아의 언어발달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각장애 유아의 구어와 수어발달 특성을 알아보고 자녀의 현재 언어발달 수준을 파악하여, 조기에 적절한 언어교육을 받는 것이 언어발달에 아주 중요합니다.

청각장애 유아와
일반유아 발달 특성



54p

청력손실과
언어발달



57p

언어발달
점검표



63p

양육 사례



67p

청각장애 유아 언어발달



1. 청각장애 유아와 일반유아의 발달 특성

① 청각장애 유아와 일반유아의 신체발달 특성에 차이가 있나요?

청각장애 유아라고 해서 일반유아와 신체발달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복으로 다른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청각장애 유아들의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일반유아와 같습니다. 다만 일부 청각장애 아동은 균형감이 부족해서 걷거나 뛸 때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일반유아와 동일하게 신체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있어요

(청각장애)아이가 까치발로 걸을 때가 많아요. 혹시 청각장애 말고 다른 장애도 있는 걸까요?

아이가 까치발로 다닌다고 다른 장애를 의심하는 것은 설부를 판단입니다. 아이가 전체 발바닥을 이용해서 걷지 않거나 몸이 경직되지 않다면 습관적으로 까치발을 하고 걷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가 전체 발바닥을 이용해서 걷지 않는다면 몸이 경직되어 딱딱하게 굳은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청각장애 유아와 일반유아의 언어습득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유아는 특별한 보조기기의 도움 없이 큰 소리, 작은 소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짧은 소리, 긴 소리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들었던 소리, 태어나서 듣고 익히게 된 다양한 소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리를 익히고 이해하게 되며 수많은 연습 후에는 스스로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청각장애 유아는 청력손실 정도, 보조기기 착용 여부, 사용 중인 보조기기 유형, 보조기기 착용 시기, 언어재활 여부에 따라 그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청각장애 유아는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다. 물론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리지만 조음기관(입술, 혀, 턱, 치아 등의 조음을 돕는 기관들)의 문제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유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각장애 유아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지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각장애 유아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이용하여 듣기 및 말하기를 교육함으로써 아동이 소리를 듣고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청각장애 유아의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조기기를 착용해도 잘 들리지 않는 유아의 경우는 어떻게 언어를 습득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도 언어를 습득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야 하지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려면 의사소통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조기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유아에게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유아들에게 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말이 아닌 행동 즉 수어를 통해 언어를 습득하고 수어를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수어 외에도 그림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다른 AAC(보완·대체 의사소통)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의 습득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청각장애 유아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각장애)아이가 우는 행동을 보이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이의 입장이 되어보아야 아이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살인 나에게 청각장애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습니다. 저기 높은 선반위에 있는 ‘바나나’가 먹고 싶습니다. 나는 5살이기 때문에 키가 작습니다.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말로 ‘바나나’를 달라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또한 아직 글자도 알지 못하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데려와서 손가락으로 선반을 가리킵니다. 엄마는 내가 원하는 ‘바나나’를 찾지 못하고 엉뚱한 물건을 가리킵니다. 나는 또다시 손가락으로 ‘바나나’를 가리켰지만 엄마는 찾지 못해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엄마에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갖고 있던 장난감을 던져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도 물건을 찾지 못하는 엄마에게 화가나 엄마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잘못된 나의 행동에 엄마도 화가 나서 나를 혼냅니다. 화와 서러움이 섞여 나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들은 이유 없이 공격적이거나 이유 없이 울지 않습니다. 아이의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아이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한다면 공격적인 행동과 우는 행동은 분명히 줄어든 것입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말도 잘 못하고요. 수어를 배워야 할까요?

아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지 2년이 넘었는데 잘 듣지 못하거나 말로 표현하는 날말이 거의 없다면 듣기 및 언어지도를 받으면서 수어도 함께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말을 배우는 목적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 듣기와 말을 배우는 것에만 너무 초점을 두고 교육을 하다보면 아이의 의사소통부분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수술 후 경과가 좋아서 수용 및 표현이 늘어 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더라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의 인성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면 아이의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의 사용을 고려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청력손실과 언어발달

① 일반 유아의 언어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생후 0개월에서 1개월: 일반 유아의 언어는 태어나면서 시작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울음을 통해 자신의 욕구(배고픔, 배변, 수면 등)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울음 또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됩니다.

생후 2개월에서 12개월: 2~3개월이 되면 말소리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인 웅얼이(cooing)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로 구강의 뒤쪽에서 산출되는 소리들이며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4~6개월이 되면 입술을 떼어 소리 내는 투레질과 같은 다양한 놀이를 하게 되고, 모음 수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소리(큰 소리, 작은 소리, 높은 소리 등)를 만들어 냅니다. 7~10개월이 되면 음절에 가까운 말소리의 산출이 가능해집니다. 처음에는 동일한 음절을 반복하는 형태(예: 마-

마마 등)로 나타나다가 점차 다른 음절과 혼합된 형태(예: 바부마 등)로 나타나게 됩니다.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 12~13개월이 되면 대부분의 유아들이 '엄마'와 같은 첫 낱말을 산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유아들의 표현어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약 15개월이 되면 평균 표현어휘 수가 약 10개, 18개월이 되면 약 50개의 어휘를 산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4개월이 되면 산출할 수 있는 어휘가 약 200개 이상에 이릅니다(Paul, 1991). 초기에 사용하는 낱말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많이 들을 수 있는 낱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엄마, 아빠'와 같은 가족의 명칭이나 '밥, 물'과 같은 음식과 관련된 낱말, 신체부위 및 동물을음소리와 관련된 낱말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18개월을 기점으로 유아들은 낱말들을 연결하는 두 낱말 조합 형태의 문장을 산출하기 시작합니다.

생후 24개월에서 3세: 생후 24개월이 되면 짧고 불완전하지만 문장을 사용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3세경이 되면 900~1000개 단어를 표현하고, 3~4개의 단어가 조합된 문장을 만들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두 단계로 된 지시(예: 휴지로 코를 닦고 쓰레기통에 버려 등)를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생후 4세~5세: 4세가 되면 1500~1600개 단어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부모나 어른들에게 질문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3세 때보다 점차 더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게 되며 최근에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5세가 되면 표현 어휘가 2100~2200개로 늘어나게 되며 자기의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일과 이후에 일어난 일을 구분지어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세 단계로 된 지시에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5세경이 되면 성인이 사용하는 문법의 90%정도는 습득한다고 합니다.

각 음소의 습득, 숙달, 관습, 그리고 출현단계(바르게 발음한 아동의 백분율)

표 6 | 한국어 음소발달 단계

연령	완전습득단계 (95~100%)	숙달단계 (75~94%)	관습적 단계 (50~74%)	출현단계 (25~49%)
24~35개월	ㅍ, ㅁ, ㅅ	ㅂ, ㅅ, ㄴ, ㄷ, ㅌ, ㅍ, ㅈ, ㅊ, ㅋ, ㆁ	ㅅ, ㅈ, ㅊ, ㅋ	ㅅ, ㅈ, ㅊ, ㅋ
36~47개월	ㅂ, ㅅ, ㄴ, ㄷ, ㅌ, ㅍ, ㅈ, ㅊ, ㅋ	ㅅ, ㅈ, ㅊ, ㅋ, ㆁ	ㅅ, ㅈ, ㅊ, ㅋ	ㅅ, ㅈ, ㅊ, ㅋ
48~59개월	ㅂ, ㅅ, ㄴ, ㄷ, ㅌ, ㅍ, ㅈ, ㅊ, ㅋ	ㅅ, ㅈ, ㅊ, ㅋ, ㆁ	ㅅ, ㅈ, ㅊ, ㅋ	ㅅ, ㅈ, ㅊ, ㅋ
60~71개월	ㅂ, ㅅ, ㄴ, ㄷ, ㅌ, ㅍ, ㅈ, ㅊ, ㅋ	ㅅ, ㅈ, ㅊ, ㅋ, ㆁ	ㅅ, ㅈ, ㅊ, ㅋ	ㅅ, ㅈ, ㅊ, ㅋ
72~83개월	ㅂ, ㅅ, ㄴ, ㄷ, ㅌ, ㅍ, ㅈ, ㅊ, ㅋ	ㅅ, ㅈ, ㅊ, ㅋ, ㆁ	ㅅ, ㅈ, ㅊ, ㅋ	ㅅ, ㅈ, ㅊ, ㅋ

출처: 김영대 (1996). 그림자음검사를 이용한 취학전 아동의 자음정확도 연구

2 청력손실에 따라 듣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청각장애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대부분 있습니다.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하게 되면 아이의 청력을 40dB 혹은 60dB로 나타내는데 사실 어느 정도의 소리를 말하는지 보통은 알기 어렵습니다. 데시벨(dB: decibel)은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합니다. 최저의 기준 레벨(0dB)로 하면, 1dB의 소리는 정상적인 사람의 귀에 들릴까말까 할 정도입니다. 귀가 건널 수 있는 최강음은 120~140dB정도가 됩니다. 다음에서는 데시벨 수치에 따라 어느 정도의 소리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0dB: 정상청력을 가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로 바람소리나 새 소리, 작은 초침소리 정도의 소리크기에 해당됩니다. 거의 정상청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보조기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0~40dB: 조용하게 말하는 소리가 여기에 포함되며 기느귀가 먹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보청기가 없어도 언어를 습득할 수는 있지만 언어를 익히게 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 언어발달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맞은 청능훈련과 언어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40~60dB: 말소리는 들리지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로 세타기 들

아기는 소리나 자동차가 달리는 소리 정도의 소리를 느끼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 크기나 그 이상의 소리가 들려야지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보청기의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60~80dB: 큰 목소리로 말해도 잘 듣지 못하는 정도로 지하철이나 버스 안의 소음, 시끄러운 식당 안에서의 소음 정도의 소리를 느끼는 정도에 해당됩니다. 보청기나 인공와우의 도움이 필요하며 꾸준한 언어적 중재가 필요합니다.

80~100dB: 기차나 오토바이가 시끄럽게 지나가는 소리 정도의 소리를 느끼는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청기만으로는 말소리를 듣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인공와우 이식의 대상자가 됩니다. 조기진단과 중재가 필수적이며, 인공와우이식을 받아도 그 이후에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00~120dB: 귀에 대고 크게 소리치는 정도의 소리로 비행기나 제트엔진의 소음 정도의 소리를 느끼는 정도에 해당됩니다. 인공와우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수술 이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시력은 한번 떨어지면 회복이 어렵다고 봅니다. 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력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다시 좋아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혹 정상청력까지는 아니지만 청력이 다시 좋아지는 경우를 볼 수는 있습니다. 청력검사결과 전정도수관확장중후군이 있는 40dB 정도의 청력손상을 갖는 청각장애 아동이 심하게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면서 일시적으로 청력이 90dB 이상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동은 한 달에 걸쳐서 서서히 청력이 40dB 가깝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력이 한번 떨어진 경우에도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또 다시 청력이 떨어지게 되면 영영 청력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아이 비행기를 타도될까요?

자동차를 타고 높은 지대를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기압차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이는 비행기를 타고 마친가지입니다. 실제로 청력은 좋았지만 청각기관이 다른 사람들보다 약했던 유아가 비행기를 타고 나서 청각장애를 갖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전정도수관 확장증(Enlarge Vestibular Aqueduct Syndrome-EVAS)이 있는 아동들은 기압에 의해서 혹은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되면 청력에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어떻게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나요?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소리를 모아 크게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 하자면 귀에 확성기를 틀어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보청기입니다. 보청기는 개인별 청력 수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보청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청기 구조와 종류, 특성 관련 내용은 2장 참조>

청력손실이 적은 유아들은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아들은 보청기 착용 후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반유아의 언어발달 순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습득하는 속도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포레 아동들 보다는 듣는 시기 및 언어를 습득하는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포레의 유아들 보다는 뒤처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포레와 비슷해지게 됩니다.

청력손실이 큰 유아들은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아주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아들에게 맞는 크기의 소리로 교육을 한다면 유아들의 언어도 분명 발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듣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모음의 중성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있어요

아이의 청력이 70dB라 수술을 하지 않고 보청기를 착용했는데 발음이 부정확해 서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지 못 합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아이가 보청기를 착용하고 어느 정도 타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인공와우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대부분 이해하고 있으며 말을 할 때 조음기관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발음만 부정확한 것이라면 발음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4 인공와우 수술을 했을 때 어떻게 언어발달이 이루어지나요?

처음 인공와우 수술을 하게 되면 2~3주간의 회복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음처리기를 달게 됩니다. 어음처리기를 달게 되면 그 때부터 아이가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갓난아이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고, 크면서 6개월쯤 되면 웅얼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2개월쯤 되면 의미 있는 첫 낱말을 하게 됩니다. 갓난아이가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바로 ‘엄마’, ‘아빠’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아이가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을 하게 되는 순간까지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대략 12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한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음처리기를 달기 시작한 순간부터 아이가 새로 태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리에 반응하는 법을 익히고, 변별하는 법을 익히고, 웅얼이를 하는 단계를 거쳐 첫 낱말을 하게 되기까지 대략 1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모든 아이들이 12개월쯤에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큰 편으로 달팽이관에 기형이 있었는지, 청신경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수술이 잘 되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언어능력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여자아이들이 남

자아이들보다 언어능력이 뛰어나 말도 빨리 하는 편입니다. 또한 수술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언어능력이 빨리 향상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기계에 이상이 있지 않는 한 빠르든 느리든 시간이 흐르면 듣게 될 것이고 때문에 아이의 언어가 늦어지더라도 조금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말하게 될거라 믿고 천천히 언어적 자극을 주며 기다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있어요

수술하고 처음으로 매핑을 했는데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수술이 잘 못된 걸까요?

처음으로 매핑(mapping)을 할 때는 아이가 새로운 기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정을 약하게 해 놓게 됩니다. 새로운 자극이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세게 해놓는다면 아이가 기계를 착용하는 것에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은 첫 매핑 때 아이가 반응을 보이지 않아 많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수술 후에 1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1달에 한 번, 그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매핑을 새로 하게 되는데 점차 기계에 익숙해지는 것을 보고 순차적으로 설정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조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번 더 매핑을 받아본 후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언어발달 점검표

1 연령에 맞는 구어발달 정도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구어발달 점검표는 해당 연령의 유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게 되는 구어적 특성들을 적어놓은 표입니다. 이 점검표를 통해서 대상유아의 구어적 특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해당연령에 맞게 성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표 7 | 구어 언어발달 점검표

연령(개월수)	구어발달특성
4~12개월	"바, 뽀, 프, 댁"가 들어간 소리를 냅니까? 모음과 자음을 결합하여 서로 다른 2음절 이상의 음절을 냅니까? (예: 아바, 아부 등) 같은 음절을 반복하여 소리를 냅니까? (예: 바바, 다다, 가가 등)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낱말이 있습니까? (예: 물, 우유, 엄마 등)-명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13~19개월	어른의 억양을 모방하여 표현합니까? 의미를 알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낱말이 4개 이상 있습니까? 아이가 하는 말 속에 "가, 깎, 쿵, 흥"와 같은 소리가 납니까? 다양한 의성어를 사용합니까? (예: 자동차 소리, 동물 소리 등) 호칭이 들어간 간단한 문장을 말합니까? (예: 엄마 까까, 엄마 맘마, 아빠 가 등)
20~29개월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 싫어, 미워, 예뻐 등) 물어볼 때 끝말을 올려 말합니까? 신체적 욕구를 말로 표현합니까? (예: 배고파, 쉬야 등) "뭐야"를 써서 질문을 합니까? (예: 이게 뭐야? 등) 주로 두 낱말 또는 세 낱말로 된 문장을 사용합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초보적인 낱말을 표현합니까? (예: 이따가, 아까 등)
30~35개월	"나", "우리" 등의 대명사를 사용합니까?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를 사용한 질문을 합니까? 간단한 복문을 사용합니까? 관형어(영사를 꾸미는 말)가 포함된 문장을 사용합니까? (예: 큰 기차 가, 빨간 공 이빠 등)



구어 언어발달 점검표에서 해당연령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청각장애로 볼 수 있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구어발달 점검표는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특성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유아에게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이들마다 신체나 언어의 성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연령에서 수행하지 못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보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연령에 맞는 수어발달 정도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농유아의 수어발달 단계는 농부모를 둔 농유아와 가정부모를 둔 농유아가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는 농부모를 둔 농유아의 수어발달 특성을 기술하였습니다.

표 8 | 수어 언어발달 점검표

연령 구간(개월수)	수어발달특성
0~12개월	• 손 웅얼이와 제스처 음성 웅얼이 이후 수 개월 후에 점차 음성 웅얼이는 감소하고 농부모의 농지내는 손 웅얼이를 하기 시작함
9~27개월	• 지시와 대명사 참조 존재하는 사람, 대상, 위치를 가리키기 위한 비언어적 지시를 사용하기 시작함. 그러나 너, 나와 같이 인칭대명사는 아직 습득하지 못함
9~36개월	• 첫 수어 산출 8~11개월: 4~8개 수어 산출 • 수어 어휘 발달 12~19개월: 60개 수어 산출 20~27개월: 150~200개 수어 산출 30~36개월: 300~380개 수어 산출
18~23개월	• 두 단어 수어 산출 두 단어로 수어 문장을 표현하기 시작하나, 아직 공간이나 일치구문을 사용하지는 못함

양육 사례 인공와우 이식과 재활 사례

청각장애 조기 발견과 조기 중재의 중요성

01
02
03
04
05
06
07

30~35개월	• 분류사 사용 공간동사를 사용한 분류사를 사용하기 시작하나, 아직 나뉘지 않는 전체로 사용하여 생산적인 분류사를 사용하지는 못함 • 일치구문 사용 일치구문의 첫 생산적인 사용이 가능해짐
36~41개월	• 굴절 형태소 사용 수동을 활용하여 공간동사의 굴절 표현이 가능해짐
42~47개월	• 복합어 사용 복합어를 사용하나 음운 패턴의 특성을 활용하여 생산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함

출처: Haug(2011)



수어를 사용하게 되면 아이가 말을 하지 않게 될까 걱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보조기기 착용 후 수어의 사용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수어를 사용하게 되면 아이가 수어만 사용하고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수어를 사용하더라도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듣기 자극과 언어적 자극을 준다면 아이가 말을 하면서 수어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실례로 청각장애인의 부모 밑에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아동이 있었는데 이 아동은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이었습니다. 이 아동은 부모님과 대화할 때는 수어를 사용하고 교사 및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구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수어를 사용하게 된다고 해서 아이가 말을 안하고 수어만 사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어사용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청각장애 조기 발견과 조기 중재의 중요성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청력검사를 통해 청각장애여부가 판명됩니다. 하지만 A아동은 신생아청력검사를 받았을 때는 청력이 정상으로 나와서 아이가 청각장애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A아동이 자라서 20개월쯤에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는데 어린 이집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A아동의 부모에게 아이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말이 조금 늦는다고만 생각했지 신생아청력검사도 통과했던 아이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사의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 이상하게 여긴 부모는 병원을 찾아가 청력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력검사결과 아이의 청력이 왼쪽이 80dB, 오른쪽이 90dB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부모는 내 아이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미 아이의 나이가 26개월이 훌쩍 지난 후였기 때문에 듣기 및 언어재활 또한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다시 한 번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생아청력검사에서 청력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청각장애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소리에 반응을 잘 보이는지 예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알맞은 보조기기를 착용한 후 조기중재를 받을수록 아이가 좀 더 수월하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보청기를 착용한 아이들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청력검사를 하여 아이의 청력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보청기 착용

B아동은 신생아 청력검사에서 청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청력검사결과 양쪽 귀의 청력이 각각 75~80dB정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이 정도의 청력을 갖고 있는 아동은 수술은 보류하고 일단 보청기로 재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B아동의 부모는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아 장애등록도 하지 않고 아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다가 청각장애 학교에서 영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아동은 10개월 무렵부터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돌이 다 되어갈 때까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낱말은 10개도 채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두 돌이 다 되어갈 때쯤 아동의 부모는 인공와우 수술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동이 표현이 잘 되지 않을 뿐 수용하는 것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 조금만 더 보청기로 재활을 해보기로 결정을 내리고 아이를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따로 치료실도 다니지 않았던 아동이 30개월쯤 되면서 2어절로 표현하기 시작하더니 습득하는 어휘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36개월이 되면서 아동은 발음이 명료하지는 않지만 4어절 이상의 문장으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성인의 억양을 그대로 모방하여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아이의 부모는 인공와우 수술을 받지 않기를 잘했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또래와 비슷한 수준의 말하기가 가능한 이 아동은 5세가 되면서 일반 유치원으로 통합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동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아이의 수용언어가 좋다는 점에 희망을 갖고 기다린 결과 아동은 보청기만으로도 충분히 또래와 비슷한 수준의 말하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청기로도 얼마든지 재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많은 선택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청각장애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은 보청기 혹은 인공와우 수술의 갈림길에 놓여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아이에게 최선이라 생각하는 선택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04

Part

청각장애 유아 언어지도



청각장애
유아 배치



72p

언어발달
지원방법



77p

양육 사례



87p

유아의 언어지도는 학교나 치료실과 같은 특정 장소에서만 실시하기보다는 유아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때 효율적입니다. 부모가 교사나 언어 재활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유아에게 좋은 언어학습 환경을 제공할 때 유아 언어 발달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04 청각장애 유아 언어지도



1. 청각장애 유아 배치

① 초기 언어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또한 다 큰 어른이 아기의 세발자전거를 탄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우스운 일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에는 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말은 배워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아기들은 생후 12개월 전후로 첫 낱말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24개월쯤 언어폭발기를 거치게 됩니다. 언어폭발기를 거치며 아이의 언어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쳐 언어를 배우게 된다면 아이의 언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를 배워야 하는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좀 더 어릴 때 받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초기에 발견하여 빨리 수술을 받을수록 아이가 좀 더 어린 나이에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이것은 곧 언어를 배워야 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 시기에 배울 수 있기에 정상적으로 언어가 발달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초기 발견 및 빠른 대처 그리고 초기 언어교육이 청각장애 유아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청각장애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24개월이 넘어서 인공와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일반아동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초기에 발견해서 초기에 언어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가 언어 자극을 받아야 할 시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12개월쯤에 첫 낱말을 하고 24개월쯤에 언어폭발기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마다 개별차가 존재하며 언어가 성장하는 시기도 모두 다릅니다. 심지어 첫 낱말을 4살에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언어는 계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일정기간에만 성장을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와우 수술을 늦게 받아서 일반아동처럼 말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는 것 보다는 인공와우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아이가 잘 들게 될 것이라고 믿고 수술 후 가장 중요한 1년의 시간 동안에 언어재활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의 언어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② 청각장애 유아교육기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영아는 만 0~2세, 유아는 만 3~5세를 의미합니다. 요즘 인공와우 수술이 생후 12개월 혹은 생후 10개월에도 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좋아져서 어릴 때 수술을 받은 후 바로 듣기 및 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에 시행하는 듣기 및 언어교육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지요. 청각장애 유아에게 언어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다. 여기에서는 청각장애 유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이 있으며 서로의 교육기관이 어떻게 조금씩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 특수학교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는 보청기 착용 및 인공와우 수술을 한 아동 그리고 수어를 사용해야하는 전농인 유아들을 6개월 정도 된 아기 때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무슨 교육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하지만 청각장애특수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이 좀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청각적 자극을 제공하고 듣기를 통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과정에 근거하여 놀이로 언어 교육을 하게 됩니다. 어린 아기를 위해서 익숙한 환경에서 언어적 자극을 줄 수 있도록 가정방문을 통한 지도를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꾸준히 가정에서도 아기에게 자극을 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어치료실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유아들은 청각 및 언어재활을 받기 위해 언어치료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어치료실은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언어재활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나, 일반아동들 중에서도 말더듬이나 조음장애가 있는 아동들 그리고 학령기의 아이들이나 노인성 치매로 인해 언어재활을 필요로 하는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군의 사람들이 언어재활을 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하지만 드물게 청각장애 아동만을 위한 언어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보통 대화병원 내 이비인후과에서 운영하는 언어치료실이 있으며 곳곳에 사설 언어치료실도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아동들은 언어치료실에서 다양한 언어적 자극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또한 조음에 문제가 있는 청각장애 아동들은 언어치료실에서 조음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실은 보통 40분 정도 수업이 진행되며 수업 후 10분 정도는 부모님과 상담을 통해 교육받은 내용과 과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앞으로의 지도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언어치료실마다 치료 후 내야하는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료실

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언어치료실의 비용이 저렴한 편이며, 대학교 내 부설로 언어치료실을 운영하는 치료실 또한 비용 면에서 부담이 적을 수 있지만 저렴한 비용 대비 치료받고자 하는 아동의 수가 많아 대기하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병설유치원)

일반 초등학교 내에 있는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에도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유치원은 만 3~5세의 유아들이 다니는 곳으로 만 0~2세의 영아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수업을 받거나 순회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교육기관은 청각장애 유아만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섞여서 수업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❸ 여러 가지 교육환경

청각장애 유아로 진단을 받게 되면 학교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단 및 배치를 받아 각각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통합학급이나 순회교육을 부모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

청각장애 특수학교는 청각장애로 진단받은 아동들만 입학할 수 있으며 청각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입학을 위해서는 교육청에 가서 특수학교 배치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직접 방문 하셔서 서류를 작성하셔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가 의뢰서, 학부모 의견서, 진단평가 결과 보고서, 장애인복지카드 혹은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일반학교의 통합학급은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일반아동과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 일과의 시작과 끝을 일반아동과 함께 하며 같은 내용으로 교육받게 됩니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청각장애로 등록된 아동이 통합학급에서 교육을 받다가 일정시간 특수학급에서 교육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통합학급에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다가 일정시간 동안 특수학급으로 가서 특수학급 담당 선생님과 아이에게 맞는 특수교육을 받게 됩니다. (예: 청각장애-청능훈련 및 언어 지도, 시각장애-점자지도 및 보행훈련 등)

순회교육

청각장애 영아의 경우에 직접 나와서 수업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해 일주일에 2~3회 교육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아가 아닌 경우라도 직접 교육을 받으며 교육기관에 나오기 어려운 정도로 신체거동이 불편할 때도 순회교육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이의 능력을 고려하여 알맞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라면 순회교육을 받거나 청각장애 학교의 영어반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이의 정력이 좋아서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일반학교의 원적학급(통합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용이나 표현부분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통합학급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특수학급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특수학교에 다니게 되면 계속 특수학교에만 다녀야 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수학교에서 청각장애 아이들을 교육하는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는 아동이 청각 및 언어재활을 받아 일반학급에 완전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특수학교에서도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다가 아이의 듣기 및 언어력이 향상되면 일반유치원이나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권유하게 됩니다. 물론 개별차가 있으므로 그 시기는 아이들마다 다를 것이고 어쩌면 특수학교에 계속 다니게 되는 아동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언어력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어도 부모님께서 일반유치원이나 일반학교로 통합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교육기관을 옮길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은 얼마나 드나요? 따로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장애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특수학교나 교육청에 문의를 하게 되면 입학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나라에서 교육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따로 교육비를 건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에 입학을 하면 급식, 우유, 통학차량(통학비)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언어발달 지원방법

① 청각보완장치 착용 적응은 어떻게 하나요?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 보조기기를 착용했던 아이들은 늘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몸의 일부로 생각하게 되어 보조기기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커서 보조기기를 착용하게 된 아동들은 보청기의 경우 몰드로 귀를 막아버리게 되니 귓속이 답답하고 또 귀에 걸리는 보청기의 무게와 새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들에 익숙하지 않아 자꾸 보청기를 빼버리곤 합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한 아동은 귓속에 몰드가 있지는 않지만 보청기보다는 크고 무거운 어음처리기를 귓바퀴에 걸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귀가 놀리며 아프게 되어 인공와우 기계를 빼서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첫 맴핑 후 처음 들어보는 청각적

자극이 익숙하지 않아서 인공와우 기계를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보조기기를 빼려할 때는 좋아하는 물건을 손에 쥐어주거나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예로 아이가 기기를 빼려 손을 올릴 때 양육자가 아이의 손을 마주잡고 노래를 부르며 울동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 는 빼려는 순간 소리가 나는 장난감이나 텔레비전을 틀어 잠시 주의를 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화가 났다는 표시로 저를 보며 보조기기를 빼서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보조기기를 통해 듣고 변별하는 능력이 부족할 때 화가 났다는 표시로 보조기기를 빼서 던지거나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보조기기를 통해 소리를 잘 듣게 된 경우라면 내게 중요한 물건이라는 인식이 강해 그럴 일이 없지만 간혹 교육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리에 대한 변별이 되지 않고, 기기를 착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모를 때 이러한 경우가 나타나곤 합니다. 이럴 때는 우선 기기를 빼어버리는 행동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아이가 왜 화가 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이의 화가 어는 정도 풀렸을 때 아이와 함께 화났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방바닥을 발로 두 번 구르거나 책을 손으로 세게 두드리는 등의 다른 방법을 가르쳐주어 화가 났다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보조기기를 빼는 행동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는 사람에게 집중했을 때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다른 곳을 보고 있거나 집중하지 않을 때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많아서 집안이 항상 시끌시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착용한 아동에게 조용한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언어지나 듣기훈련을 할 때는 반드시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많아 항상 조용한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면 아동이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는 조용히 할 수 있도록 다른 자녀들과 약속을 한다거나, 배우자나 주변의 지인에게 부탁해 다른 자녀들을 일정 시간 동안 데리고 나가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언어를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나 치료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언어발달에 도움이 될까요?

텔레비전을 틀어보면 말소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배경음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배경음 중에서 선택적으로 필요한 말을 선별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기기를 착용하지 얼마 되지 않은 아동들은 여러 가지 소리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어 오히려 소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환경에서 사람의 말소리를 들려주어 변별하는 훈련을 하고 언어교육을 받을 때에 아이의 언어발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언어발달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② 소리 청취 환경 조성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가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조기기를 착용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착용한 보조기기 가까이에서 말해주도록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이야기를 할 때는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하

③ 청능재활 단계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동이 보조기기를 착용하고 청각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듣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청능재활을 실시하게 되는데 가정에서도 충분히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지각하는 단계를 감지 → 변별 → 확인 → 이해의 순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각 단계에 맞추어 어떻게 자극을 주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지의 단계는 다양한 악기나 익숙한 말소리,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채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정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조용한 상황에서 문을 쾅 닫거나 텔레비전을 틀거나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난 곳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린다면 소리가 난 곳을 정확하게 찾는지를 파악하여 현재 아이가 보조기기를 통해서 소리가 들어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무의식중에 소리를 잘 듣고 있음을 확인한다면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소리를 들려주고 반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예로 '똑똑'하고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을 때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쁘게 소리 없이 두드리는 흉내만 내었을 때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리가 들렸을 때만 붙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책상을 두드릴 때 아이가 책상에 손을 올려놓고 있으면 '똑똑'하고 칠 때 책상에 올리는 진동으로 아이가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소리를 들려줄 때는 아이의 몸이 책상에 닿지 않도록 하여 다른 감각에는 자극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리는 다른 어떤 소리라도 괜찮습니다. 활동 또한 스티커 붙이기 말고도 고리를 끼운다거나 볼록을 찌는 다거나 하는 놀이로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가 들렸을 때만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지의 단계가 지나면 소리를 변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소리의 변별은 2가지 이상의 소리를 듣고 제시된 소리가 같은 소리인지, 다른 소리인지를 구분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소리마다 독특한 특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정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아빠, 엄마의 목소리 구별하기가 있습니다. 한 예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는 고리를 끼우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는 고리를 빼는 활동으로 변별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북과 피리를 이용하여 소리의 길이나 소리의 크기,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를 변별해볼 수도 있습니다.

소리의 확인단계에서는 제시된 소리의 특징을 알고 이를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2가지의 소리자극에 대해 변별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듣고 변별하는 것에 더해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동물의 울음소리를 듣고 해당하는 동물그림 카드를 찾거나 들린 동물울음 소리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활동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정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동물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책이나 카드를 보면서 동물울음 소리를 듣고 알맞은 동물을 찾는다거나, 교통기관이 그려져 있는 그림책이나 카드를 보면서 교통기관 소리를 듣고 알맞은 교통기관을 찾는 활동입니다. 또한 부모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주인공의 이름을 들려주고 알맞은 만화 캐릭터를 찾도록 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3 이해의 단계

이해의 단계에서는 말의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듣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아동이 짧은 글이나 문장을 듣고 질문에 답을 한다거나 지시를 따르는 등의 활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하게 대답을 따라하는 것이 아닌 생각을 통해 스스로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정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책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짧은 책을 읽어보고 등장인물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고, 동화내용의 순서에 따라 그림을 배열해보거나 이야기를 해보는 등의 활동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오늘 있었던 일을 그림일기로 적어보는 활동도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4 부모가 언어지도를 돕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보통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아동에게 청능재활뿐만 아니라 언어지도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이가 상대방에게 보다 명료하게 문법적으로도 이상이 없는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아이에게 언어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리 들려주고 반응 체크하기

여러 가지 악기소리(피리, 호루라기, 벨로디언, 북, 탬버린, 마라카스 등)나 탈것 소리(자동차 소리, 기차소리 등), 사람의 목소리(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아이 목소리 등)를 들려주어 아이가 어느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지, 어느 소리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소리들을 작게, 크게 혹은 중간 정도 크기로 들려주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크를 함으로써 아이가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강도와 음역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아이에게 잘 맞는 음역대의 소리를 들려주어 언어지도를 실시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 마주치기

아이에게 언어지도를 할 때 아이와 눈을 마주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동에게 눈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하면 아이가 나에게 어떠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을 하고 싶으시 하고 싶지 않은지, 아이가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이 활동이 즐거운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정보도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눈으로 바라보며 허락을 구하기도 하고 칭찬받고 싶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아이의 눈이 아말로 부모, 혹은 교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칭찬하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을 배우고 있는 아이에게 칭찬은 좀 더 말을 신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말을 하면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칭찬을 받기 위해 한번이라도 더 말을 하려 할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명료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 교정되어져 첫 낱말로 ‘엄마’, ‘아빠’가 나오게 되는 것처럼 아이가 말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이 교정 받을 수 있는 여지

가 있게 됩니다. 교정을 받을수록 발음은 더욱 정확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산출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더욱 많이 말해볼 수 있도록 칭찬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기

아이가 소리를 내어 표현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말을 하는 순간을 포착해 함께 반응을 해주게 되면 아동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누군가가 집중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늘 곁에 있다면 어떨까요? “내 이야기가 재미있구나”, “내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어 계속 이야기가 하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더 즐겁게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아이의 말을 따라하며 완성해주기

처음 보조기기를 착용한 아동들의 말은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면서 정확한 말로 다시 한 번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예로 아이가 자동차를 갖고 놀다가 우연히 “바~”와 비슷하게 말로 표현을 했을 때 엄마는 “뽕뽕~ 한거야?”라고 자동차놀이에서 나올 수 있는 비슷한 말로 바꿔 들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쌓이고 쌓여 아이는 자동차 놀이를 할 때는 “뽕뽕”이라고 말해야 하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고 나중에는 “뽕뽕”이라고 말하며 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아기는 엄마의 말을 따라 하기 시작하면서 말을 배우게 됩니다. 엄마의 말투, 엄마의 억양을 그대로 모방하며 배우기 때문에 아이의 말을 놓치지 않고 작은 소리라도 의미와 연관시켜 따라해 준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언젠가 내 아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행동 말로 읽어주기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행동을 말로 바꾸어 표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현재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는 빨대를 이용해 그릇에 담긴 비눗방울액을 묻히려 툭툭 두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할 때마다 “푹, 푹, 푹” 혹은 “툭, 푹, 푹” 등의 말을 일관성 있게 들려줍니다. 또 아이가 빨대를 입으로 가져가 불려고 할 때 “후~불어”라고 아이의 행동을 말로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불어서 나온 비눗방울을 하나씩 터뜨릴 때마다 “펑! 터졌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듯 다른 놀이나 행동을 할 때도 아이의 행동을 읽어 말로 표현해주는 것은 아이의 언어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의 수준에 맞는 언어 사용

아이가 보조기기를 착용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처럼 아이에게 들려준다면 아이는 소리를 소음으로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들려줄 때도 아이의 수준에 맞게 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살 짜리 아기에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라는 말을 들려주어도 아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통 1살 짜리에게는 “○○야 안녕~”, “까꿍~”, “우리 아기 예쁘네” 등의 짧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조기기를 착용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아는 막 태어난 아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말을 들려줄 때는 길고 장황한 말보다는 짧고 강한 낱말 수준에서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계속 낱말수준의 말로만 들려주어서는 아이의 언어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언어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보며 2어절의 짧은 문장으로, 그 후에는 3어절의 문장으로 엄마의 말하기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이의 언어가 성장하는 것에 맞춰 엄마의 말하기도 바뀌어야 아이의 언어가 쑥쑥 자라게 됩니다.

기다려주기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잘 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기다려주기입니다. 아이가 생각하고 소리를 낼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그 시간을 잘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아이가 목이 말라 엄마에게 물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다가왔다고 가정해봅시다. 눈치가 빠른 엄마들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물 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럴 경우 행동을 읽어주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아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엄마가 빼앗아 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현명한 엄마들은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챘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말로 표현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아이가 정확하게 “물 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무~”, 혹은 “아~”라고 소리 내어 표현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표현한 뒤에 “물?”, “물 줄까?”라고 아이의 행동을 읽어주면 아이가 말해볼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동시에 아이의 행동도 읽어주게 되어 아이의 언어 발달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5 수어 지도가 필요한가요?

보조기기를 착용하고도 듣는 것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아이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어를 지도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아동이 구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조기기를 착용하고도 잘 들리지 않는 아이에게 구어만을 강조한다면 아이에게 말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수어를 지도해 부모나 그 외에 만나는 특정 사람들만이라도 아이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소통을 틔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어를 먼저 배우고 난 후에 조금씩 구어교육을 함께 시킨다면 아이의 고통도 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 구어교육에만 치중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좀 더 넓혀 수어에 대한 교육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각장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청각장애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교육은 많이 어렵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한 자극을 익히고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것인데 부모님이 직접 소리에 대한 자극을 주는 것도 어렵고 아이가 소리를 내는 것에도 적절하게 반응해줄 수 없기 때문에 청각장애 부모님을 둔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교육은 어렵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언어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간접인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보통은 친가나 외가의 조부모님들이 그 대상이 되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언어를 습득할 때까지 함께 살면서 아이의 언어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나 치료실과 같은 아동의 언어를 교육하는 전문기관에서 아이를 교육한다면 아이의 언어가 차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아이들은 이중문화와 이중언어(Bicultural and Bilingual: 2Bi)를 습득하게 됩니다. 청각장애 부모님을 두었기 때문에 이 아동들의 1차 언어는 수어가 됩니다. 부모님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언어가 수어인 것이지요. 그리고 2차 언어로 우리말(한국말)을 익히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부모를 둔 아동은 1차 언어로 한국말(부모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미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2차 언어로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청각장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청각장애 아동은 부모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말 즉 수어를 1차 언어로 배우게 되고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2차 언어로 한국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아동에게는 부모의 요구에 의해 언어지도 시 수어를 병행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양육 사례 ①

예쁜 손가락

최수아(가명)

은실이 태어난 지 3주 만에 받은 청력 검사 결과를 의사 선생님께 들었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검사를 몇 번이고 다시 받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럽고, 내가 잘못 살아와서 은실에게 이런 장애가 온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게 지내던 어느 날 00청각장애 학교에서 상담하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은실이 정말 청각장애인이구나 실감하게 되니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받는 날 00청각장애 학교 상담을 받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렇게 아픈 손가락이 된 은실이는 1년 만에 인공와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하느라 수술실에 들어가는 은실에게 마취 주사를 놓는 순간 힘없이 아빠의 품에서 굳히 잠들어 버린 은실을 바라보던 그 시간은 제가 태어나서 가장 가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처음 인공와우를 착용하던 날 무슨 소리가 들려서인지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내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와우수술 전에는 또래 아이에 비해 걸음마도 하지 못했지만 수술 후 재할 시작을 하면서 걸음마 하는 것을 보면서 수술이 행동 발달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 너무 기뻐하고 신기했습니다. 그레! 열심히만 하면 될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언어치료실과 00청각장애 학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말도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발성이나 소리반응이 늦고 무엇보다 상호 작용이 안 되니 너무 걱정스럽고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뭐가 문제일까? 많이 고민하고 실망했습니다. 자꾸 은실이란 다그치게 되었고 점점 조금씩 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혼자만 고민할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은실이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선생님과 저는 은실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마다 성향

양육 사례 ②

‘주는 사랑 받은 사랑’

이영은(가명)

어느덧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새 겨울 문턱을 넘어가고 있다. 하루하루가 지나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봄·여름·가을·겨울이 지나서 1년이 되고……. 이렇게 사십 해를 지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아이들은 어느새 꿈나라~ 곤히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면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다가도, ‘아, 그렇지! 내가 미처 느끼지 못한 사이에 지은와 지혜는 이렇게 부쩍 컸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식당을 연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인 오후 5시에 식당 문을 열어서 새벽 1시까지 일을 한다. 새벽에 들어와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새벽 두세 시쯤 되면 지은, 지혜는 자기들이 일어나서 아침을 챙겨먹고 학교를 간다. 저녁에는 돌이서 저녁을 먹거나 아동센터에서 저녁을 먹고 온다.

처음에는 힘들다고 투정도 부리고 지각도 하고 저녁이면 가게에 전화가 불이 났다. 이렇게 일 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 아이들은 너무나도 기특하게 자기 할 일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가끔 내가 힘들다고 아이들에게 투정을 부리면 돌이 짜기라도 한 듯,

“엄마, 사춘기라 그래.” 엄마가 무슨 사춘기냐고 하면,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요즘은 아줌마들도 사춘기 온대.” 갱년기 온다는 걸 그렇게 말하는 거 같았다.

그리고 보니 큰딸 사춘기 때 처음 반항했을 때가 생각난다. 큰딸이 중학교를 배정받고 입학 하기 전에 아이의 스트레스가 최고였나 보다. 사실 일반학교에서 장애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아이나 엄마나 받은 상처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을 줄 미리 알았다면 일반학교를 그렇게 당연하다 싶게 쉽게 결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지은이의 중

이 다른데 은실이는 듣고 말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 은실이가 더 힘들어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후에는 은실이에게 칭찬도 많이 해주고 캠핑도 다니며 마음 편하게 지내다 보니 차츰 은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과라도 웃으며 먼저 안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그룹수업을 할 때 아직 학교에 오지 않은 같은 반 친구가 있으면 교실 밖으로 마중을 나가 친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은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뿌듯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몸도 마음도 부쩍 자란 것처럼 내년에도 친구들과 함께 씩씩하고 맑게 자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청각장애 학교 생활을 한지도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처음 학교에 왔을 때 청각 장애인 학교라는 편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은실이에게 도움이 되는 곳이라 하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다른 부모님들도 편견을 과감히 버린다면 정말 청각장애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통합을 위해 갈 길이 멀지만 학교와 선생님들을 믿고 힘차게 달려보려 합니다. 저도 은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쁜 은실이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아픈 손가락에서 예쁜 손가락으로 새로 태어난 자랑스러운 우리 딸 은실이 사랑한다.

학교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어떤 것인지 짐작하는 바였지만, 그래도 나는 지은이가 견디고 강해지기를 바라며 그레야 이 험한 세상살이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3년 전 중학교 입학하기 며칠 앞두고 지은이와 지혜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이들 방문을 열었다. 나를 보던 작은 딸 지혜가 울면서 “엄마, 언니가 때렸어~ 어쩌구 저쩌구~” 지은이도 무언가를 말을 하려 했는데 나는 상황을 보니 대충 알 수 있었다. 지혜가 또 언니 물건을 건드려서 지은이가 화가 난 거였다. 그날은 내가 감기몸살로 몸이 안 좋은 상태라서 지은이 말을 들어 보지도 않고, “지은아, 동생 잘 돌보아지. 때리면 안 돼.”하고 타이르고 내 방으로 와 서 다시 누웠다.

그런데 갑자기 지은이가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와, 흥분한 목소리로 왜 내 얘기는 들어 보지도 않고 동생 말만 듣고 그러냐고 따졌다. 억울하다고 울면서 “엄마 때문에 내가 청각장애로 태어나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엄마가 나를 가졌을 때 조심했으면 난 정상으로 태어났을 텐데. 엄마 때문에 내가 청각장애로 태어났잖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억울해!”라고 소리치고는 자기 방으로 가버렸다.

난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있었다. 조금 있다가 지은이는 내 방으로 와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면서 한참을 말없이 울기만 했다. 학교생활 하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상대방 아이 말만 듣고 오해를 해서 많이 속상했는데 엄마도 동생 말만 듣고 혼내니 순간 참지 못했다고 하면서 울기만 했다. 순간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난 정신을 차리고 지은이와 지혜를 안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선 나도 세상에서 제일 이쁜 내 아이를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로 낳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엄마도 건강한 아이로 낳고 싶었어. 엄마도 억울해. 임신했을 때 나쁘다고 해서 전자레인지도 사용하지 않았고 자동차 매연도 나쁘다 해서 자동차가 지나가면 피해서 다니며 조심했어. 그런데 하느님이 엄마에게 주신 아이는 청각장애가 있는 지은이었지만 엄마에게는 너무 소중한 하고 예쁜 딸이야. 하느님이 엄마에게 지은이를 보내준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있어.

많이 부족한 엄마라서 노력하면서 키웠는데 지은이는 엄마가 노력한 것보다도 더 잘 커주고 있어서 늘 고맙고 청각장애가 있지만 다른 아이들 못지않게 잘 자라주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너무 고마워. 처음에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를 주셔서 하느님께 서운했는데 지금은 엄마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

지은이를 키우면서 엄마는 너무 행복해. 비록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가 너를 더욱 빛나게 할 수도 있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뿐이지 그게 걸림돌이 되진 않아. 장애가 있다는 건 창피한 게 아니야. 불편하면 도움을 청하면 돼. 물론 도와주는 이도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다 좋아할 수는 없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지은이의 반응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중학교 생활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 지금은 00청각장애 학교로 전학을 와서 생활하는데 밝고 명랑한 지은이로 돌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요즘 부쩍 철이 들은 지은이와 동생 지혜는 엄마가 힘들게 일한다고 집안일도 알아서 제법 잘 한다.

요즘 들어 사는 게 힘들다고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자주 투정을 부린다. 내가 힘들다고 그 게 아이들 탓은 아닐 텐데…….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처를 준다. 나는 어쩔 못된 엄마이고 못한 엄마이다. 못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내 딸들이 오히려 고맙고 사랑스럽다. 내가 별것도 아닌 일로 투정부리고 화를 내면 엄마도 사춘기가 와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웃어넘기며 이해해주는 지은이와 지혜~

내가 아이들을 지킨다 생각했는데 오늘 생각해보니 지은이와 지혜가 나를 지키고 있다. 지은이가 힘들다고 투정부리면 강해져야 한다고 소리치던 내가 정작 힘들다고 아이들에게 투정이나 부리고~ 내가 준 사랑은 아주 작은 사랑인데 아이들이 나에게 주는 사랑은 끝이 보이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인 것 같다.

“지은아, 지혜야,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05

Part

청각장애 유아 수어 지도



한국수어

94p

농문화

99p

이중언어교육

100p

양육 사례

103p

청각장애 유아의 언어지도 방법에는 크게 구어/청각적 접근, 종합적 의사소통(total communication), 이중언어/이중문화접근(2Bi) 등이 있습니다. 이 언어지도 방법들은 제대로 시행되면 교육 효과는 비슷합니다. 아동의 언어발달 특성에 따라 더 효율적인 언어지도 방법이 존재할 뿐입니다. 최근에는 수어의 언어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가 많이 밝혀졌으며, 수어를 교육현장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수어와 농문화에 대한 내용과 수어 이중언어교육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05 청각장애 유아 수어 지도



1. 한국수어

① 한국수어란 무엇인가요?

한국수어는 한국농인이 사용하는 자연발생적인 언어로 규칙지배를 받는 시각-운동 체계입니다. 2016년 2월 3일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르면,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이며,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어는 농인 사회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의 양식으로 농인들에 의해 창조되고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언어입니다. 또한 자연적으로 발생한 손과 몸짓, 표정과 같은 비수지 신호를 사용하는 시각-운동언어 체계입니다. 수어는 구어와 마찬가지로 음운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적으로 언어학적 특징이 있는 완전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인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한국수어는

한국어의 의미구조나 문법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언어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수어를 지도할 때는 수어를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고 그 특성을 고려하여 지도해야 합니다.

② 청각장애 아동의 수어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청각장애 아동의 수어 발달은 가청아동의 구어 습득 과정과 비슷한 단계로 발달합니다. 가청아동의 부모가 모어로 언어발달을 돕는 것처럼 수어를 사용하는 아동에게 부모가 눈 가까이에서 제시하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등 청각장애 영유아에게 맞는 독특한 방법으로 수어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연령별 수어발달 단계는 제3장 <표 8>을 참고하세요.

③ 한국수어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수어는 구어와는 다른 표현상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 언어입니다. 구어가 모음과 자음과 같은 음소를 결합하여 단어를 만드는 것처럼 수어도 수위, 수형, 수향, 수동, 비수지 신호로 구성된 수어소를 결합하여 단어와 문장을 만듭니다. 여기서 수위란 수어의 단어가 산출되는 위치, 수형은 손의 형상과 모양, 수향은 단어가 산출될 때의 손가락과 손바닥의 방향, 수동은 수형의 운동, 비수지 신호는 입 모양, 신체, 머리, 눈의 움직임, 다양한 종류의 얼굴 표정을 말합니다.

수어의 표현상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석동일, 1989).

공간적 배열

청인들이 음성언어를 청각-시각적으로 음소를 발화한다면 수어는 시각-공간적으로 수어소를 배열합니다. 위에 설명한 수위, 수형, 수향, 수동, 비수지 신호를 결합하여 공간에 배열함으로써 단어나 문장을 구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상성과 규칙성

수어는 수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전화] 수어는 누구나 전화임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사물의 특성을 본떠 만든 수어는 도상성이 높습니다. 반면, 추상적인 단어는 수어의 모양과 수어의 뜻 사이에 관련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특정 수어를 사용하기로 약 속합니다. 이것은 규약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7 | [전화] 수어

동시성

수어는 양손을 사용하여 공간과 몸을 운동 장소로 하는 시각적 기호입니다. 수어자들이 동시적으로 짝을 맞추어 수어 단어를 형성하는 동시성의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역성

가역성은 수어에 있는 독특한 특성으로 주로 반의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과 [밤]의 수어는 손의 모양은 같지만 손의 방향을 반대로 나타내어 표현하는데 이를 가역성이라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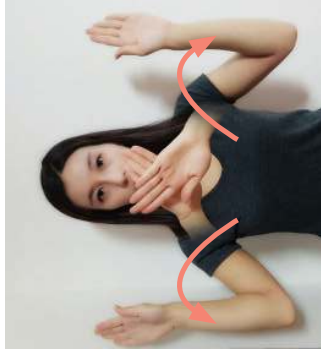


그림 18 | [낮] 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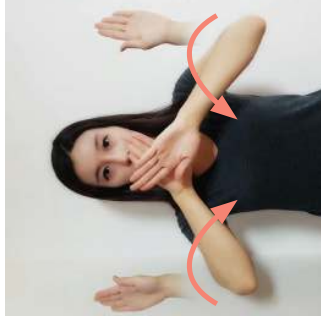


그림 19 | [밤] 수어

반복성

반복성은 구어에서도 볼 수 있는 특성으로 의성어나 의태어, 강조의 표현에서 반복성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라는 수어는 동작을 반복하여 나타내어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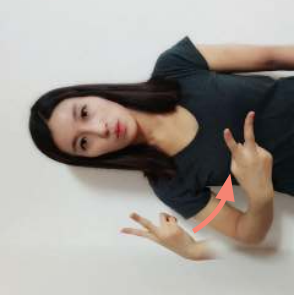


그림 20 | [또] 수어

조음과 조동의 운동량

음성언어에서 말소리에 관여하는 기관인 입, 혀 등의 조음기관의 운동량보다 수어를 사용할 때 필요한 손과 몸의 운동량이 큼니다. 사람은 간단하고 편리한 경제성 요구를 가지기 때문에 수어도 조동의 운동량을 간결하게 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수지 신호의 적절한 사용

비수지 신호는 표정, 머리의 방향, 시선, 몸의 방향, 몸의 움직임 등을 나타내는 데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나타내는 데 사용하며 손동작 없이 비수지 신호만으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얼굴표정으로 [아프다], [안타깝다] 등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징

위와 같은 특징 외에 수어는 입체적 언어표현이 가능하다는 특징, 감성적 표현, 표현 상의 심미성 등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④ 농유어가 한국수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한국수어(Korean Sign Language ; KSL)는 한국의 농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진정한 농인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화를 하나의 언어로 보는 관점으로 수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으로 농인에게 수어를 사용하

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청인에게 음성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농부모-농자녀의 언어발달 과정은 건청부모-건청자녀의 언어발달 단계와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농아동 중 많은 비율이 건청부모를 두고 있으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수어보다 구어만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수어를 사용하는 것이 음성언어를 습득하는데 방해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수어능력과 읽기능력 간의 관계, 농부모의 농아동 언어발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어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는데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수어교육은 농인으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농문화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어 대응수화, 문법수화, 수어, 한국수화 등 수화를 나타내는 말이 많은데 의미 차이가 있나요?

문법수화와 한국어 대응수화는 국어의 음성언어 문법체계와 거의 흡사하며, 음성언어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는 자연수화와 건청인의 구화를 결합하여 만든 인위적인 언어이고 한국어의 문법에 수화언어의 어휘만을 삽입한 것으로 독자적인 언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수화를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는 의미에서 수어라는 용어로 사용하며 한국수어(Korean Sign Language : KSL)는 한국의 농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진정한 농인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정되고 시행된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한국수어라는 용어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아들도 수어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어도 외국어와 같이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수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수어 교실이나 농인과 대화를 많이 해 보세요. 국립국어원의 한국수어사전(<http://sdict.korean.go.kr>)에서 동영상으로 배울 수도 있어요.

2. 농문화

① 농문화가 무엇인가요?

농문화를 설명하기 전에 농인은 시각언어인 수어를 통해 의사소통 하는 농사회의 구성원이고, 농문화를 주도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최근 수어를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게 된 인식의 변화에는 농인을 청력을 손실한 장애인이나 교정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문화적 소수집단으로 이해하게 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농인'을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농문화'를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정체성'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이라고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농정체성이 발달할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이 되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농문화란 농사회의 구성원인 농인들이 수어라는 언어를 통해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농문화는 수어를 공유하는 문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인은 수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며 농사화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강한 응집력을 보이고 그 속에서 개인의 자아개념, 정체성 등을 확립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② 농문화는 어떻게 형성되나요?

농인사회에서 생활하는 농아동은 대부분 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청인 문화를 먼저 습득하게 되지만, 성장하면서 농문화를 알게 되며 농 세계의 다른 사람들과 강한 연대감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농문화는 농인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집단으로 농학교, 농인교회, 농인단체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농학교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고 여기에는 농문화가 활성화되고 전승되며, 농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를 학교라는 집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농문화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수어'입니다. 수어는 농문화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

고 농문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농사회가 구성되게 합니다. 농인이면서 수어를 모르는 농인은 농사회에서 동화되지 못하고 청인사회와 농사회 두 개의 영역에서 이방인의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농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농정체성을 인식하게 되는 곳이 농학교 기숙사인데 농인들은 대체로 여가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농정체성과 문화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농정체성의 습득과 경험으로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출신 학교를 중심으로 강한 유대감을 가지게 되며, 농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농정체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성되는 것인가요?

정체성은 자기 내면의 이미지와 다른사람의 반응에 영향을 받고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데 농부모에게서 태어난 농아동들은 청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농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거나 장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장애를 인식하게 되며 이때부터 자아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청인부모의 농아동은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 이전까지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음성언어의 발달을 강요받는데 이는 어떠한 집단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주변에만 머무르는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정체성의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중언어교육

❶ 청각장애 이중언어교육이 무엇인가요?

이중언어·이중문화 접근법은 두 개의 언어인 수어와 구어, 두 개의 문화인 농문화와 청인문화를 활용한 청각장애 교육방법으로 수어를 모국어로 구어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2차 언어로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문화권에서 다른 문화를 인정한다는 것이 다양한 민족이나 인종이 함께 살아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어나 수어 하나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각각의 언어와 문화를 인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접근법입니다.

❷ 이중언어교육이 언어발달에 도움이 되나요?

농아동의 교육에 있어 수어가 구어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어 학습은 농·난청 아동의 언어학적·인지적 발달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수어가 구어 습득을 방해한다는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수어를 어린 시기에 접할수록 농·난청 아동이 글자 능력을 함양하는데 탄탄한 언어학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어와 구어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언어교육은 수어 및 구어 발달에 서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수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농아동 혹은 건청 아동은 구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건청 아동과 유사한 발달 경로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 수어를 사용하는 아동과 구어를 사용하는 아동은 웅얼이(7~12개월), 최초 단어 구사 단계(12~14개월), 두 단어 단계 등 동일한 성장 과정을 밟습니다. 또한 수어 습득 과정에서 흔히 겪는 실수 또한 건청 아동이 말을 배우면서 겪는 실수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 성향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셋째, 건청아동의 음성언어 습득 과정과 마찬가지로 농아동 또한 수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가 존재합니다. 농인이 획득하는 수어의 문법 능력은 수어 습득을 언제 시작하느냐에 상당히 좌우됩니다. 이는 수어가 연령에 상관없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오해와는 달리 배우기 쉽지 않고 복잡한 수어 문법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❸ 외국의 청각장애 이중언어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미국에서는 1980년대 말에 청각장애인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전략으로써 이중언어교육이 제기되어 시행되었고, 최근에는 이중언어·이중문화

접근에 대한 논의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농교육학자들은 농어린이들에게 수어를 영아기나 유아기에 발달시켜야 하며 1차 언어로 미국수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수어가 시각-운동 체계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다는 점과 미국수어 대부분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농 성인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이며 농어린이들도 건청어린이들이 구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미국수어를 습득하며 미국수어가 농어린들의 뇌가 인지과정을 수용하는데 적합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며 1차언어로 수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질문있어요

청각장애 유아와 의사소통하는 가장 효율적인 의사소통 양식은 무엇인가요?

모든 청각장애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효율적인 단 하나의 의사소통 방법은 없습니다. 유아의 언어환경과 선호하는 의사소통 양식을 고려하여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구어나 수어와 같은 의사소통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의사소통의 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청각장애 아동이 활용 가능한 모든 의사소통 양식을 활용하도록 하는 종합적 의사소통(Total Communication) 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육 사례

농문화와 청문화 사이에서 '코다 프라이드'를 발견하다

이 글은 비마이너 인터넷신문에 기고된 코다 이길보라님의 글입니다.

코다(CODA)는 Children of Deaf Adults의 줄임말로 농인(청각장애인) 부모 아래서 태어난 아이를 일컫는 말이다. 한국에는 아직 코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지만, 외국의 자료에 따르면 농인 부모 아래서 태어난 아이 중 90%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인이라고 한다. 10%에 해당하는 농인 코다는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수어(수화 언어)를 습득하고, 농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 청인 코다 역시 부모로부터 수어를 배우고 세상으로부터는 음성 언어를 습득한다.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 사용자가 되고, 농문화와 청문화를 동시에 접한다. 나의 경우가 그렇다.

나의 첫 번째 언어이자 모어는 한국 수어고, 두 번째 언어는 한국 음성 언어다.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음성언어가 되지 못한 그 소리는 내겐 너무 익숙한 것이었다. 엄마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보라'가 아니라 '보아'일지라도 나는 그것이 엄마가 나를 부르는 가장 정확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엄마는 때때로 내게 그림책을 읽어 주었다. 다른 아이들은 그림책에 눈을 두고 엄마의 목소리를 귀로 들었지만, 나는 그림 대신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림 엄마는 책에 나오는 그림보다 훨씬 더 생생한 표정으로 호랑이를 연기했고, 사자를 연기했다. 그 무서운 동물이 내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나는 너무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그 누구보다 훌륭한 이야기꾼이었다. 나는 부모를 닮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지만 세상 사람들은 혀를 차며 나를 불쌍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혹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착한 딸이 되어야 한다고 혼수를 두었다. 당신이 무얼 아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오히려 부모가 욕을 먹을까봐 나는 착한 척을 해야 했다. 엄마와 나 사이에는 벽이 없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엄청나게 높은 벽을 갖고 있었다. 나는 때때로 그것에 세계 부딪히곤 했다. 부모를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했다.

코다 코리아, 영국에 가다

나만 그런 줄 알았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함께 은행에 가서 우리 집의 빚이 얼마인지를 부모 대신 물어봐 했던 것. 대출이 안 된다는 은행원 앞에서 부끄러워 도망가고 싶었지만 부모의 완강한 표정을 통역하며 왜 안 되냐며 재차 물어봐야 했던 것. 부동산에 전화해 새로 이사 갈 집의 전세금이 얼마고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물면서 통역해야 했던 것. 병원에 가서 엄마가 어디가 아프는지 정확하게 통역하지 못해 찢찢해야 했던 것. 내가 ‘집 안의 통역사’인지 ‘청각장애인의 딸’인지 ‘동생의 엄마’인지 혹은 ‘나 자신’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또 겪었던 것. 그런 일을 전부,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줄만 알았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코다’라고 부른다고 했다. 내가 겪었던 일련의 비슷한 일들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것을, 20대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코다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고, 태생적으로 지닌 재능으로 수화통역사가 되기도 하고 연기자도 되기도 하며 이야기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는 코다들이 모여 만든 여러 형태의 단체가 있고 그것이 CODA UK, CODA HONGKONG, CODA JAPAN, CODA INTERNATIONAL 등의 이름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다. 한국에서 모인 코다들은 우리의 모임을 코다 코리아(CODA KOREA)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모임의 미래를 고민하던 중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영국의 코다 단체 CODA UK & IRELAND가 여름에 여는 코다 캠프에 참가하기로 했다.

코다 캠프는 런던에서 기차로 한 시간 남짓 떨어진 그랜섬(Grantham)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원 같은 캠프지에서 열렸다. 캠프는 총 3박 4일 동안 84명의 코다 청소년과 20명의 코다 성인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하는 형태였다. 코다 코리아 구성원 중 한 명은 캠프 일정 전체를 보고 싶어 자원활동가로 함께 했고, 나를 포함한 나머지는 캠프의 3일차와 4일차 일정을 함께 했다.

코다 캠프

캠프지에 도착하니 참가자들은 연령대별로 그룹을 나누어 여러 활동들을 체험해보고 있었다. 공중 그네를 타고 있는 그룹도 있었고, 타이어에 올라 타 이곳에서 저곳으로 뛰어 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그룹도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들부터 시춘기를 겪고 있는 중·고등학생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 코다가 있었다.

우리를 가장 먼저 반겨준 것은 성인 코다 자원활동가였다. 그중 비키(Vicki)가 우리를 무척

반가워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홍콩에서 영국으로 이민을 온 농인이라고 했다. 홍콩 말(광둥어)은 잘할 줄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이렇게 아시안 코다를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다며 우리를 꼭 안아 주었다. 3박 4일 동안 열리는 코다 캠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원활동가들이 참가할 수 있는지 궁금했던 우리는 비키에게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나는 5년 전쯤에 내가 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되었어. ‘너 코다야? 나도 코다야!’ 이렇게.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열렸던 코다 컨퍼런스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코다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는데 매우 황홀했어. 코다 캠프에 참가하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정말 너무 행복해. 물론 나도 프리랜서로 수어통역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을 이렇게 내기가 어려웠지만 다들 이렇게 많은 코다를 한꺼번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시간을 내지.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서 온 너희들도 만나게 됐잖아?”

비키는 말하는 내내 영국 영어와 영국 수어(British Sign Language)를 섞어서 사용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자연스럽게 음성언어와 수화언어를 섞어 대화했다.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가 사용하는 음성언어가 다르고 수화언어가 달랐지만, 나는 그녀의 표정과 손의 움직임으로 영국 수어의 의미를 유추했다. 두 가지 혹은 서너 가지의 언어를 넘나들며 자연스럽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한 우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는 코다로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건 정말 ‘국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었다.

우리가 코다 캠프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바로 영국 청소년 코다들이 갖고 있는 자존감이었다. 한국에서는 코다로서의 자존감을 갖기가 매우 어렵고, 혹여 긍정적인 자존감을 어렵사리 갖는다 하더라도时时때때로 흔들리기 마련이었다. 그건 나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물론 처음 입을 피해 아무 아래에 앉아 있는 두 명의 청소년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코다라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음, 별로? 물론 어렸을 때부터 통역을 해야 하니까 힘들긴 하죠.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농인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와, 그럼 너 수어할 줄 알아?’하는 반응을 보이며 부러워해요.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이걸 나쁜 거긴 한데 밤에 부모님 몰래 놀러 나갈 수도 있고!”

이제 막 시춘기에 접어들거나 지나고 있을 뻔해 보이는 그들은 그리 특별한 건 없으며 웃듯

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다시 물어보았다. 그래도 부끄러운 적이 있거나 단점이 있지 않냐고. 그러자 둘은 왜 자꾸 그런 부정적인 질문을 하느냐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았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 왜냐하면 코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다로서의 자존감인데, 그것이 관련 지원 프로그램 및 체계에서 오는 것인지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에서 오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하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코다 프라이드

우리를 흥미롭게 쳐다보던 잭(Jack)이라는 친구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나중에 정신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나중에는 농학교에서 농인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도 했다. 우리는 잭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아주 어려울 때부터 부모와 함께 은행에도 가야하고, 병원에도 가야 하니까. 가서 나는 고작 6, 7살인데 부모의 말을 통역해야 하고.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긴 해서 힘들긴 해요. 그런데 그게 부끄럽다거나 싫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나는 다시 되물었다. 정말 그럴냐고.

“내가 코다라서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내가 의사나 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통역을 하면 그들은 나를 바라보죠. 그럼 나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내가 없으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서로 소통할 수 없잖아요, 심지어 그가 의사라도 말이예요! 그때 이렇게 나는 우쭐해질 수 있어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잭은 대답을 마친 후 친구들에게 달려갔다.

캠프 3일차 저녁 일정은 디스코였다. 리듬이 빠른 음악이 크게 울려 퍼졌고, 모두가 정장을 차려 입거나 원하는 캐릭터로 분장을 하고 몸을 흔들고 있었다. 그 사이, 드레스를 입은 청소년들이 보였다. 춤을 추면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그러자 앞에 있는 친구가 손을 움직여 수어로 대답을 했고, 나머지 친구들도 그녀를 바라보며 수어로 대답을 했다. 고개를 돌려보니 디스코장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수어로 대화하고 있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 “뭐라고?” 하며 목청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어로 입술 대신 얼굴 표정과 손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 그 행위가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또 다른 능력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확실히 코다 캠프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의 영향도 크겠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전

반적인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코다 코리아 구성원 중 한 명은 캠프를 방문하는 내내 이렇게 말했다.

“너무 아름답고 놀라워요. 그런데 너무 슬퍼요. 코다가 이렇게 멋지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그냥 어쨌든 이게 달콤한 꿈 같은 것이 되어 버릴까봐 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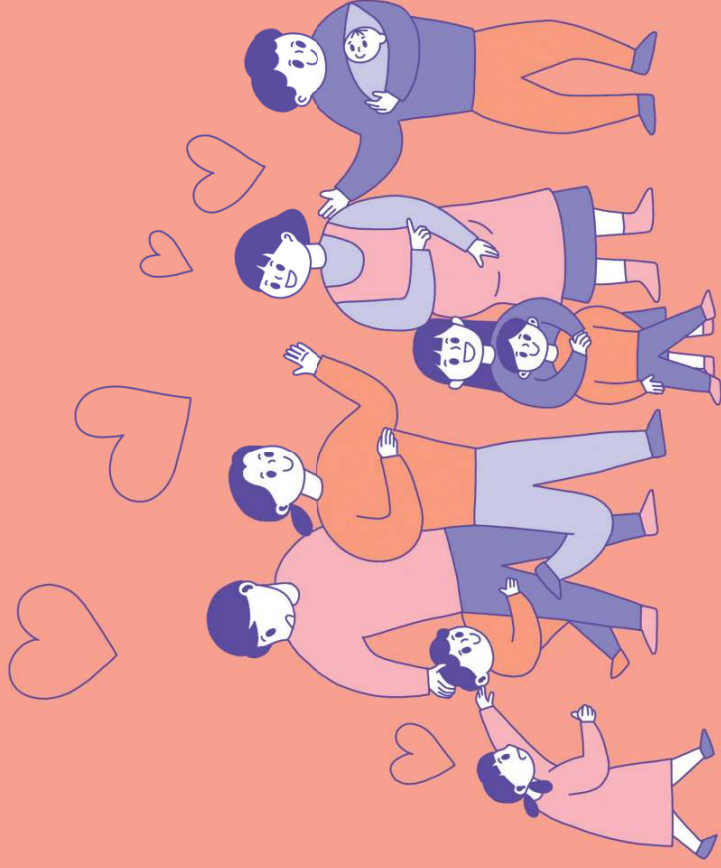
우리는 코다로서의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영국의 코다들을 보며 우리의 지향점은 바로 이것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해야 하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생각에 한숨을 여러 번 쉬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로 하여금 코다로서의 자존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했다. 그들은 그것을 이렇게 불렀다, CODA PRIDE(코다 프라이드).

* 글쓴이 _ 이길보라. 이야기꾼. 농인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이야기꾼의 신천적 자질이라고 굳게 믿고, 글을 쓰고 영화를 찍는다. 열여덟 살에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며 작은 이야기를 책 『길은 학교다』(2009)와 『로 드스콜라』(2009)로 펴냈다. 출판 디큐멘터리 <로드스콜라>(2008)와 농부모의 반짝이는 세상을 맡아자 감독의 사선으로 다룬 장편 디큐멘터리 <반짝이는 박수 소리>(2014)를 찍었다. 동명의 이름으로 책 『반짝이는 박수 소리』(2015)를 펴냈다.

06

Part

청각장애 유아 가족지원



청각장애 유아의 부모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청각장애 부모와 청인부모입니다. 혹은 드물지만 청각장애와 청인을 모두 부모로 둔 청각장애 유아도 있습니다. 이렇듯 청각장애 유아의 가족은 여러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각 가족이 살아가는 양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의 역할과 가족의 기능	▶	행복한 우리가족 가꾸기	▶	장애부모 동료 상담지원	▶	가족지원과 지역사회 네트워킹 활용	▶	양육 사례
110p		117p		122p		122p		125p

청각장애 유아
가족지원

1. 부모의 역할과 가족의 기능

① 청각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청각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내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신을 탓하고 배우자를 탓하는 부모도 있고, 더러는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숨기며 은둔생활을 고집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이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아까운 시간 또한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바로 이 깨달음을 즉 내 아이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부모로서 청각장애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첫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조기기 선택

청각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의 장애를 빨리 발견했건 늦게 발견했건 아이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알맞은 보조기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신생아 때 신생아청력검사를 신청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신생아청력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보건소에서 신생아청력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으로도 아이의 장애를 조기발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력검사를 통해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에게 어떤 보조기기를 착용하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때 부모님들이 놓치게 되는 것은 청각장애가 어떤 장애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이 어떠한 보조기기들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쪽의 이야기만 듣고 보조기기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의사나 청각장애 유아를 교육하는 교사나 치료사,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교수 혹은 청각사 등 청각장애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문을 통해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어떠한 보조기기를 선택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어떠한 교육을 받게 되는지 혹은 어떠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한다면 좀 더 아이의 삶 전반을 어우를 수 있는 적합한 보조기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조기기의 종류, 특성 관련 내용은 2장 참조>



전문이야

다들 인공와우 수술을 하던데 인공와우 수술을 하면 잘 들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공와우 수술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잘 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신경에 손상이 있거나 달팽이관(와우관)에 기형이 있으면 인공와우 수술을 해도 잘 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적절한 시기에 청능훈련 및 언어지도를 받지 못해 도 들기 및 말하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인공와우 수술이 보편화 되고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면서 수술 후 구
어교육을 선택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물론 잘 들을 수 있
게 되고 청능훈련 및 언어교육을 통해 구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
만 수술 후 모두 같은 언어성취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마다 언어를 익히는
속도가 다른 것처럼 아이가 갖고 있는 언어력에 따라 익히는 속도가 다를 수 있고,
수술 전 청신경 손상의 여부, 달팽이관 기형여부 혹은 수술의 성공여부, 인공와우
기기의 손상여부에 따라 구어발달이 매우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
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언어가 빠르게 향상되지 않는다고
하여 조급해 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로 인해 구어를
선택했지만 꼭 구어만을 고집하지 말고 아이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수어를 선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청력이 왼쪽은 45dB, 오른쪽은 80dB입니다. 보청기만으로 재활이 가능 할까요? 인공와우 수술을 하면 더 잘 듣게 되지 않을까요?

이 아동이 갖고 있는 청력이면 인공와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청기를 통한 재활이 가능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무조건 인공와우 수술을 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보조기기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 정도의 청력을 갖고
있는 아이가 인공와우 수술을 하게 되면 잘 듣고 잘 말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
공와우 수술을 하지 않고 보청기 착용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습니다. 보청
기를 착용하지 않고 45dB정도면 보청기를 뺐을 때 조금 큰소리로 아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
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와우 수술은 기계를 빼게 되면 아무 소리도 들
을 수 없게 됩니다. 남아있던 잔존청력마저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귀로 들
는 소리와는 조금 다른 기계음처럼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되며 악기나 다양한 소리의 음을 구
별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보조기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방법 결정자

아이에게 적절한 보조기기를 선택한 후 부모들은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
게 됩니다. 바로 의사소통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청각장애에 유
아가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은 수어와 구어입니다. 혹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청각장애 자녀를 둔 청각장애 부모는 이에 대한 결정이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고 현재 수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가 부모와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수어를 배워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수어를 1차
언어로 선택하고 구어는 2차 언어로 배울 수 있기에 청각장애 자녀를 둔 청각장애
부모는 청인 부모에 비해 아이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고민은 좀 더 적을 수 있습
니다.

청각장애 자녀를 둔 청인 부모는 그에 비해 고민이 많습니다. 수어를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일반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기가 힘들 것 같고, 구어
를 선택하게 되면 아이의 언어교육에 드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교육으로 얼마만큼



나중에 아이가 커서 살아가야 할 환경이 구어를 써야하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 구
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잘 결정한 것이겠지요.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어머니만큼 아이의 모든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아이를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
리신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판단이 곧 아이의 판단이라는 생
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아이가 자라서 구어와 수어를 다시 한 번 선택하는 순간
이 오게 된다면 그 때에는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 때문입니다.

청각장애 아동은 둔 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청력이 많이 나쁘지 않아서 어렸을 때
부터 보청기를 착용하고 구어교육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기대대로 잘 자라게
되었고 일반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이
는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부모는 자녀가 수어를 사
용하는 청각장애인들 모임에 자주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이는 수
어를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어를 잘 하지 못하는데도 일부러 수어를 배워가면서 그 모

임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말을 잘 하는데 일반인들이 나가는 모임에 나가지 않고 왜 수어도 모르면서 청각장애인들이 있는 모임에 나가는 거니?”
엄마의 말을 들은 자녀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내가 수어를 모르지만 그 모임에 가면 마음이 편해요”

가장 훌륭한 교사

아기가 성장할 때 누구를 보고 배우게 될까요? 아마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와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부분은 부모가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말을 배우는 아기가 부모에게 언어적 자극을 받아 말을 익혀나가기듯이 인공와우 수술을 한 아동이나 보청기를 처음 착용한 아이 또한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부모의 언어적 자극으로 인해 말을 익혀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가장 훌륭한 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이의 언어지도를 위해 여러 교육기관이나 치료실 등을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머무는 시간은 하루 중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기관 및 치료실에서 배운 것을 얼마만큼 부모가 아이에게 제공하느냐입니다. 교육에 대한 것을 교사나 치료사에게만 맡겨놓고 부모가 언어적 자극을 주지 않는다면 아이의 성장은 더디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교사나 치료사에게 배운 것에 더해 부모의 언어적 자극이 더해졌을 때 아이의 언어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각장애 유아 언어지도에 관련 내용은 4장 참조>



아이의 언어발달을 위해 가정에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치료실 및 교육기관에서 그날 배웠던 것에 대한 복습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교육기관에서 배우고 온 내용으로 한 번 더 복습을 해준다면 아이가 배웠던 내

용을 기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반복적인 연습으로 언어를 습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 드리고 싶은 것은 동화책 읽어주기입니다. 책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글을 모르는 영유아에게는 그림책을 통해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의성어, 의태어, 동물 울음소리, 동물 이름, 탈것 소리 등 다양한 사물의 이름과 다양한 소리들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동화책을 통해 다양한 간접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화책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어휘부터 문법들 관용적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가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는 것을 돕게 됩니다.

내 아이의 노력자

아이의 부모는 아이에게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 아이를 위해 부모가 해야 하는 것은 길을 미리 열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길을 제시하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에서 아이가 힘들어할 때 아이를 믿고 함께 걸어가 주는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가 하는 작은 이야기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가 잘 했을 때는 칭찬을 잘못했을 때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행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회를 통해서 아이에게 책임감과 자립심을 길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장애로 인한 사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외부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아이도 외부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다는 말과 함께 많이 안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것처럼 아 이들도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며 안아주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부모님이 나를 믿고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② 가족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장�를 가진 가족을 수용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부모보다 그 외의 다른 가족들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게 된 갈등을 잘 해결해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형제와 자매

청각장애 아동의 형제와 자매는 청인아동의 형제와 자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아동을 형제로 두었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도 내가 청각장애 형제를 돌보아야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청각장애 형제를 잘 돌보지 못하면 부모가 나를 싫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많은 고민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형제와 자매가 가족으로서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주변사람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청각장애 자녀에게만 관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와 자매에게도 관심과 애정을 주어야합니다. 또한 형제자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없으면 내가 잘 돌보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자매가 청각장애 형제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도록 하고, 많은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청각장애 아동과 그 형제자매가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어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형제와 자매에게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느낄 때 형제자매는 스스로 가족 내에서의 자기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조부모

청각장애 아동의 조부모는 위로자, 조연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아동의 부모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모들은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양육경험이 부족한 초보 부모들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들이 청각장애인이란 양육에 대해 더욱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조부모님이 본인들의 경험을 통해 이

런 양육에 대한 지식으로 조연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가족 내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청각장애 아동의 부모보다 손주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더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손주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청각장애 아동의 부모 즉 내 아들 딸이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음으로서 겪을 슬픔 또한 감당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슬픔은 잠시 누르고 조부모는 위로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족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조부모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2. 행복한 우리가족 가꾸기

①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가꾸기 위한 엄마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엄마 혼자만의 시간 갖기

청각장애 아이를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는 주 양육자는 대부분 엄마입니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직업 혹은 여가시간 등)을 포기하고 아이의 교육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 또한 대부분 엄마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아이를 위해 살아가다보면 어느 순간 엄마도 지치게 됩니다. 가사 일을 도맡아하고 양육 및 교육 또한 엄마의 몫이지만 아이가 언어교육을 받고 언어가 빠르게 성장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것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언어가 내 기대만큼 늘지 않고 성장이 느리다면 이 모든 것들이 엄마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엄마 혼자만의 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포츠, 영화, 독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엄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각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다른 엄마들과 모임 갖기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엄마들을 만남으로써 서로에게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사도 치료사도 의사도 주변의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상처를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같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나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과 모임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 아이들을 미리 키워본 선배 엄마들에게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엄마들과 모임을 갖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가 없는 다른 형제자매와 함께 하는 시간 갖기

엄마는 청각장애 자녀에게 모든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청각장애 자녀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다보면 다른 청인 형제자매는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청인 형제자매는 청각장애 자녀에게 양보하기를 은연중에 강요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점점 엄마와 청인 형제자매는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개선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청인 형제자매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인 형제자매들이 원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인정과 사랑, 이해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요즘 고민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엄마의 애정을 느끼는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의 이해와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고 느끼게 되면 청각장애 아동의 형제자매도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부만의 시간 갖기

청각장애 아이를 낳고 부부는 어려움을 이기고 서로 더 이해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믿을 때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조력자로 아이들의 버팀목으로 있어주기 위해 부부간의 신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힘든 것을 서로 나누고 어려움을 때 서로 의지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부모님이 나와 이렇게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며 부모에게서 힘을 얻게 됩니다. 부부만의 시간(여행, 영화 보기 등)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더욱 단단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가꾸기 위한 아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세상에 내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 깨닫기

이 세상 모든 아빠들은 회사의 일들을 모두 혼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회사의 일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회사에서 승진도 해야 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꼭꼭 참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을 가족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는 가족들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이렇듯 회사는 보통 아빠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회사보다 더더욱 중요한 내 가족은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족은 나의 마지막까지 함께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가족은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아버지 학교, 아버지 교육 등의 참여를 통해 직접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기

요즘 아빠들은 아이들과 보내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빠들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많이 찾게 되는데 이는 엄마가 아빠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은 점점 아빠와의 관계가 어색하게 되고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아빠들은 집에서 있어도 혼자라고 느끼게 될 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들은 아빠의 자리를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아빠 스스로가 바뀌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③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가꾸기 위한 형제자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내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좋은 것은 좋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부모도 나의 의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이건 내가 그런 것이 아닌데' 등 생각한 것을 직접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 표현을 해야 부모도 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늘 좋은 것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싫은 것도 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알고 서로 협력해야 행복한 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족 이해하려 노력하기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족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형제와 친해질 수 있도록 한발 먼저 다가가고 때론 서운하게 하는 부모님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④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가꾸기 위한 조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아이들 돌봐주기

아이들을 매일 일정시간 돌봐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돌보기란 주말에 청각장애 자녀의 부모가 부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2~3시간 정도 돌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조부모는 손주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부부는 아이 없이 조용한 부부만의 휴식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부부사이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믿고 응원해주기

조부모의 역할은 양육을 온전히 책임지는 역할이 아닙니다. 조력자로서 믿고 응원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많아지면 서로 다른 양육방법으로 인해 의견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양육자는 부모로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 양육자를 부모로 정하고 조부모는 가끔씩 조언을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연자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하면서 청각장애 아동의 가정을 믿고 응원할 때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3. 장애부모 동료상담지원

① 장애부모 동료상담이 무엇인가요?

장애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부모님들에게 같은 장애인 부모이자 동료로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찾아가는 장애인 부모 동료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상담을 희망하는 장애인 부모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은 자녀의 성장 및 발달, 장애자녀 초기 진단시 겪는 스트레스 및 충격, 장애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어려움 및 스트레스 해소, 장애자녀 양육에 대한 노하우 및 정보제공, 동료 장애인 부모와의 교류 및 연계를 위한 상담입니다.

상담의 종류에는 대면상담, 전화상담, 집단상담이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② 장애부모 동료상담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① 전국 콜센터 : 대표번호 1800-6755
- ② 이용 절차: 서비스 신청 → 상담일자 예약 → 상담서비스

4. 가족지원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①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유아가 직접 물음으로 지역사회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익힌다면 사회성은 물론이고 성격도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시설에는 언어치료실, 복지관, 지역사회 모임 등이 있습니다. 듣기 교육뿐만 아니라 보는 교육도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가끔씩 다양한 지역사회 행사, 운동경기 등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주고 부모도 함께 참여하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② 지역사회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청각장애 복지관

청음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0길 6
삼성소리샘복지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30길 19-4
서대문 농아 복지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47길 23
제주도 농아 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령서로 16길 19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91 길 100
대전 손소리 복지관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로 508

청각장애 특수학교

경남청광학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878번길 20
광주선우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모룡대길 61
구미혜당학교	경북 구미시 선산대로 129
대구영화학교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50길 33
대전원명학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길 2
메이리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갯안1길 8
부산구화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600-26
서울농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3
서울삼성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30길
서울애화학교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52길 31
안동영명학교	경북 안동시 북후면 산악길 12
에바다학교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길 북 129-23
인천성동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80
전주선화학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39
충주성심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2동 640-2번지
한국구화학교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95-59
한우리학교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향길 243

청각장애 전문 언어치료, 재활기관

가천의과대학교 길병원 이비인후과 언어치료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98
강남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언어치료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05

양육 사례 농자녀를 둔 농부모 이야기

농자녀를 둔 농부모 이야기

농인 부부는 아이를 등교시킨 후 시내 한 북판에서 호떡을 팔고 있는데 당당하게 청각장애 인이라고 크게 써놓고 가격도 다 써 붙여두었습니다. 이제 단골손님도 많아 미리 주문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10살 딸이 있는데 딸 역시 농아동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임대아파트에서 생 활하고 있으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대화할 때는 수어로 대화하며, 딸 이 인공오우 수어를 받은 이후에는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부모님과 대화할 때는 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딸은 한국어와 한국수어를 모두 사용하는 이중언어사용자입니다.

딸 아이는 다른 장애인 자녀들에 비해 비교적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학업에 대한 욕심도 많아 방과 후 활동도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어치로 배우처로(교육부 바우처: 고3까지 사 용) 언어치료를 1주일에 2회 받고 있으며, 미술학원과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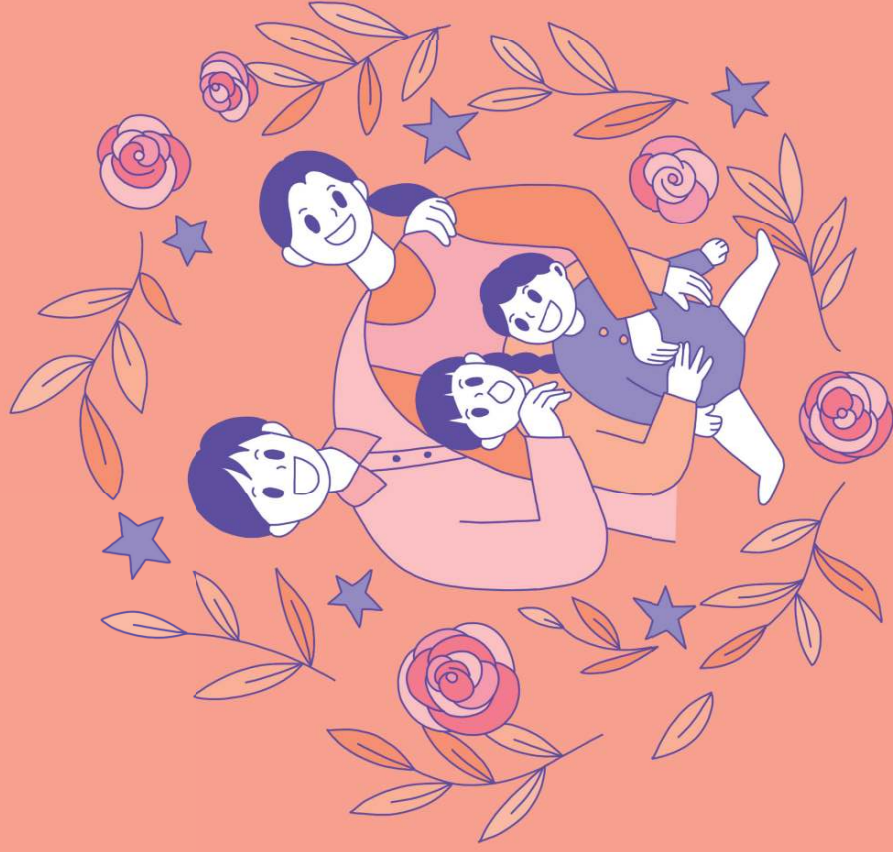
농인 부모님은 관공서나 다른 볼 일이 있을 때 근처 수화통역센터(191개소, 2016년 기준)에 통역 의뢰를 하여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의 수어통역 지원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루어지고, 기관에서 수화통역센터로 통역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통역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농자녀가 농부모를 둔 경우에 농자녀는 정체성이 뚜렷하고 성격도 밝고 리더십도 있어서 사 회적응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농자녀는 농인 부모를 창피해하지 않고 “농인 부모 밑에 내가 청 각 장애인인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07

Part

청각중복장애



중복장애는 두 가지 또는 여러 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복장애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가 많아 중도·중복장애란 용어도 사용됩니다. 청각·중복장애란 청각장애를 주장애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장애가 더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최근 청각장애 학교에서 증가하고 있는 청각중복장애의 특성과 유형을 알아보고, 청각중복장애 교육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복장애의 일반적 특성	▶	128p
청각중복장애의 특성과 유형	▶	129p
청각중복장애 교육	▶	130p
양육 사례	▶	132p

07 청각중복장애



1. 중복장애의 일반적 특성

중복장애 아동은 아이가 성장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여러 기능들을 더디게 익히고 장애정도에 따라 배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청각이나 지체 장애가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시각이나 지체 장애를 가진 아이는 결음마를 배우고 스스로 이동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는 일상생활에서 배운 것들을 스스로 사용하는 데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중복장애 아동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어 보다 많은 도움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2. 청각중복장애의 특성과 유형

청각장애와 함께 다른 장애를 동시에 가진 경우 청각·시각장애, 청각·지체 장애 등 두 장애가 뚜렷하게 확인되기도 하지만, 청각·학습장애, 청각·자폐장애처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장애, ADHD, 긴장장애 등 여러 장애가 청각장애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청각장애와 중복된 장애로 단순하게 구분지을 수 없으며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① 청각·시각장애

- 청각과 시각 양쪽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듣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이동에 어려움이 크고,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를 배우기 어려워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 청각의 장애 정도, 시각의 장애 정도가 개인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청각·지적장애(정신지체)

- 청각장애와 지적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 청각을 통한 학습이 어렵고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이해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언어발달이 느리고 복잡한 어휘의 사용이 어렵습니다.

③ 청각·지체장애

- 청각장애와 신체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 청각장애로 인한 언어장애와 함께 지체장애로 인한 언어장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 손의 운동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수화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④ 청각·자폐성장애

- 청각·자폐성장애 아동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상동행동을 하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집착을 보일 수 있습니다.
- 수화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경우 수화언어로 다른 사람의 질문을 따라하는 반향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주로 혼자 있습니다.

3. 청각중복장애 교육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의 특성과 아동에게 나타나는 장애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중복장애 아동의 경우 이러한 필요는 더 커지며 청각장애와 함께 가지고 있는 장애 유형에 따라 적절한 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① 청각중복장애 교육의 기본 가정

- 모든 아동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클수록 아이에 대한 보호자의 믿음은 작아집니다. 보호자가 먼저 아이가 학습할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 청각중복장애 아동은 독특합니다. 아이의 능력과 필요로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합니다. 보호자는 이런 아이의 특성을 잘 살펴야 합니다.
- 아이가 잘하는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아이가 음식 이름을 모른다면 음식그림으로 원하는 음식을 주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포레 아이와 함께 배워야 합니다. 청각중복장애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언어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은 포레 아이들을 통해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 가족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아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아이는 가족으로부터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청각중복장애 지도 내용과 방법

- 청각적 보조도구를 적극 활용하고 잔존청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 난청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을 통해 인지적인 기술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 음성언어, 수어(수화언어), 보완·대체의사소통수단 등 아동에게 맞는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하고 언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해야 합니다.
- 가정생활, 학교생활 등 아동의 생활모습을 잘 살펴서 아동의 학습특성을 파악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배우도록 합니다.
- 시각장애, 지체장애 등으로 신체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꾸준히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자립할 수 있도록 운동능력을 향상시켜 주어야 합니다.
- 자폐성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 친구 등 여러 사람과 편안한 만남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주는 등 대인관계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인지적 발달이 늦어지는 경우 감각 운동과 구체적인 물건들을 통한 반복활동으로 개념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 촉지각 등을 활용하는 교재·교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상담과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성심학교에서의 일 년을 보내며...

김예미(가명)

요즘 학교에서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한창이다. 그 모습을 보니 작년 이맘때 아이의 학교 선택을 위해 이리저리 분주히 돌아다니던 그 때의 내가 떠오른다.

우리 아이는 조산의 후유증으로 청각, 언어장애와 뇌병변(뇌성마비)장애를 갖게 되었다. 등록은 안했지만 시각 역시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좋지 않다. 생사의 기로를 거쳐 사람 구실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했던 여러 해를 넘기고 인공와우 수술을 한 후 3년 정도 지나 소리 변별력이 생기면서부터 아이는 차츰차츰 발전하기 시작했다. 어른들의 관심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누워 있던 아이가 잡고 일어서고 걷고 하면서 벌어진 최근의 5년은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으로 발전한 것과 같이 나에게서는 혁신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다가올 때 나에게서는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는 것이 그림의 떡이요, 넘지 못할 선처럼 보였다. 살아준 것 만 해도 고마운 내 아이를 험한 세상에 발 딛게 하기가 무서워 입학할 2년 유예하며 고민했다. 내 아이가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통합과 특수교육에서 정답은 어느 쪽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확실한 것은 집에만 붙들어 둘 수 없고 사회에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선배엄마들을 찾아가 현실을 듣는 것이고 둘째는 내 눈으로 일일이 학교탐방을 해보는 것이었다.

처음엔 통합교육을 받는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실제 공개수업 등을 참관해 보기도 했다. 사 회성 훈련이 필요한 정서장애 아이들에게는 통합교육이 좋을지 몰라도 여러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 아이에게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청각장애 특수학교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원주에는 청각장애 특수학교가 없어서 서울로, 춘천으로 가보았다. 하지만 딱 여기다 하는 느낌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집에서 어느 정도 가깝지만 수도권도

아니고 같은 지자체도 아니라 제외시켰던 학교를 방문하기로 했다.

인상 좋으신 교감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보니 아이의 재화를 위해 언어치료실이 전부 인 줄 알았던 내가 바보처럼 느껴졌다. 유아과정부터 아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언어훈련과 좋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좀 더 일찍 와 보지 않은 것을 후회할 정도였다. 그리고 학교탐방을 위해 2층에 올라가서 복도에서 아이들과 마주친 순간 내 마음은 정해졌다.

여기다! 내 아이가 초·중·고를 보낼 곳은 바로 여기였다. 그 때 내가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마주친 모든 아이들의 얼굴에 피어 있던 환한 웃음이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순간 우스운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었다. 이 아이들은 그냥 학교생활이 즐거운 것이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선후배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공간이 좋은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임 이유가 없었다. 어렵게 태어나 여러 힘든 수술과 재활 과정을 거치고 생애 대부분을 치료실을 전전하며 보낸 아이에게 이제는 같은 공동체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오는 즐거움과 행복을, 그리고 공부를 하며 고난을 이기고 성취하는 기쁨을 알게 해 줄 때가 온 것이 다. 나는 결정했고 지난 일 년 동안 한 순간도 흔들리거나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요즘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기 싫어하는 아이를 깨우거나 숙제 안한다고 꾸짖는 아이를 혼 내거나 하면서 이제야 보통의 엄마들처럼 학부모가 됐음을 느낀다. 그리고 내 아이가 보통의 아이들처럼 학교에서 학습하고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하나씩 알게 되는 것을 다행이라고 여긴다. 내 아이가 주변을 의식할 필요 없이 자기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자아존중감을 지켜 나갈 수 있음을 행운이라고 여긴다.

쏟아짐이 지나버린 일 년, 배움의 즐거움을 맛 본 아이와 그 아이가 하나씩 깨우쳐 가는 것을 뿌듯하게 지켜보는 엄마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처럼 새로운 즐거움에 동참할 후배들을 맞이할 시간이 되었다. 그들이 어떤 각오와 설레임을 가지고 올지 알 수 없으나 내년도 신입생 학부모님들이 성심학교에서의 즐거운 학부모생활(?)을 시작하시기를 기원해 본다.

출처: 충주성심학교 교지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원, 한국농어인협회 (2016). 수화언어와 사회적 의사소통. 2016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김경진 (2007). 한국의 농문화에 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김영태 (1996). 그림자음검사를 이용한 취학전 아동의 자음정확도 연구. 언어청각연구 제 1권.
- 김영태, 김경희, 윤해련, 김희수 (2007). 영유아 언어발달 검사(SELS) 전문가용. 서울: 특수교육.
- 대한청각학회 (2008). 청각검사지침. 서울: 학지사.
- 서울시복지재단 (2014). 가족지킴기이드북 청각장애편. 서울: 서울시복지재단.
- 심현섭, 김영태, 김진숙, 김향희, 배소영, 신문자, 이승환, 이정학, 한재순 (2013). 의사소통장애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유은정, 백무진, 안성우, 최상배, 서중현, 이광렬, 서유경, 허민정 (2013). 청각장애 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 윤미선, 최은아, 구호림 (2007). 청각장애 아동의 부모를 위한 지침서. 서울: 군자출판사.
- 최성규, 허명진, 박찬희, 김정규, 박진영, 김미희, 박은주, 송혜경, 이수연, 이정우, 정승희, 주미영, 박비주, 신지현 (2015). 쉽게 풀어가는 청각학과 언어. 서울: 양서원.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2016). 청각장애 아동교육. 서울: 양서원.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2012). 청각장애 아동교육. 서울: 양서원.
- Marschark, M., & Hauser, P. C. (2016). How deaf children learn: what parents and teachers need to know. 이종민, 최상배 역. 농아들은 어떻게 학습하는가: 부모와 교사를 위한 지침서. 파주: 교육과학사.
- Haug, T. (2011). Adaptation and evaluation of a German sign language test. Hamburg University Press.

참고 사이트

- 굿모닝보청기 - <http://goodmorningha.com>
- 동아대학교병원 난청클리닉 인공와우센터 - <http://www.soriclinic.com>
- 메델코리아 - <http://www.medel.com>
- 세브란스병원 인공와우센터 - <http://www.yonseicci.co.kr>
- 소리비비인후과 - <http://www.soreclinic.com>
- 이주대학교의료원 난청센터 - <http://ajouciajournmc.or.kr>
- 오티콘 - <http://www.oticonshop.com>

장애위험을 보이거나 실제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도 험난한 여정입니다. 일반 아이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은 널려 있지만 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나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장애인들을 둔 어머니들께서 장애인 유아 양육 가이드북 개발 필요성을 호소했고 국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요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30여명의 연구진과 6명의 연구보조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그리고 그 뜻을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연구 과정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발된 것으로 첫발을 내딛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니다. 어느 장애 영역까지 다룰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지에서부터 심지어는 용어와 문체까지도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처음으로 시도되는 작업이기에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수 차례의 집필진 및 팀장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그레도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와 부모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독자층의 범주가 넓다보니 기술 내용의 난이도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결국 누구에게나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책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편집 디자인과 삽화 제작 등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가이드북 개발 사업은 장애인 자녀 부모님들을 위한 양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이드북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같은 자료들이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가이드북이 나오기까지 연구진 외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심층면담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20명의 어머니,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400여명의 부모님, 자신의 자녀를 기른 경험을 수기 형태로 진솔하게 써주신 40명의 어머니, 세세한 내용까지 꼼꼼하게 검토해 주신 5명의 전문가 자문위원님, 전국 12개 지역 설명회에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500여명의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귀찮은 일들을 기꺼이 도맡아 주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가이드북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전국의 어머니들께 조금이나마 안내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집필진을 대표하여 **김삼 섭** 올림

- 연구책임자: 김삼섭 교수** |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발달장애지원학과
연구·집필진(30명, 가나다순)
- 강미애 교수 | 서울맹학교
 - 강민채 교수 |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연구1팀장
 - 김기률 사무총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연구5팀장
 - 김성연 사무국장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김수진 교수 |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 김원석 교수 | 충주 성심학교
 - 김정현 교수 | 백석대학교 특수교육과* 집필3팀장(사각장애)
 - 김진경 교수 | 한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김재왕 변호사 | 희망을 만드는 법(공익인권변호사모임)
 - 김지훈 정책연구실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연구3팀장 및 집필6팀장(가족지원)
 - 나경은 교수 |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연구2팀장
 - 서동수 진료부장 | 서울시립어린이병원
 - 서보순 교수 | 동의대학교 유아교육과* 연구4팀장
 - 서선진 교수 | 건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집필1팀장(발달장애 양육자서·정보)
 - 서은경 회장 | 전국장애인가족지원협의회
 - 송지숙 센터장 |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 유경미 센터장 |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유진선 학부모 | 이월병설유치원
 - 이미현 부회장 | 한국장애인부모회 청각장애분과
 - 이서욱 교수 | 충주성심학교

- 이원미 교사 | 서울누리학교
- 이정옥 회장 | 한국중증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 임용재 교수 | 일보군마대학교 특수교육과* 집필5팀장(지체장애)
- 정유진 학부모 | 성남성음학교
- 정은정 교수 | 인동과학대학교 물리치료학과
- 최명진 센터장 | 대진동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최미점 교수 | 경민대학교 이동보육과* 집필2팀장(발달장애 양육기술)
- 최상배 교수 |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집필4팀장(청각장애)
- 홍경훈 교수 |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협력 연구관

- 안상권 교육연구사 |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사업 지원

- 조경미 팀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업 출판 간사
- 서은주 운영지원국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윤진철 조직국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김나리 운영지원팀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박윤선 관리옹호팀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윤애영 대학원생 |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발달장애지원학과

사업 수행 지원 기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회 및 12개 시·도지부
- (주)크리에이티브 다다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for the top section, featuring alternating solid and dash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for the bottom section, featuring alternating solid and dash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for the top section, consisting of 10 rows of dashed lines on a white background.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for the bottom section, consisting of 10 rows of dashed lines on a white background.





발행일 2016년 11월 30일

발행인 국립특수교육원장 우이구

발행처 국립특수교육원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40
www.knise.kr
T. 041-537-1500 F. 041-537-1450

디자인 (주)크리에이티브 다다
02-518-1571
www.credada.com

ISBN 978-89-6095-599-8 94370
978-89-6095-595-0 (세트)
<비매품>